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스
함께 아시오!
NMLS# 24256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①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82호

Wednesday, February 4 2026 A

‘트럼프식 주택’ 100만채 건설 추진

중·하층 위한 저렴한 ‘집’
워싱턴 등 미주전역 대상

워싱턴을 비롯해 미주 전역의 집값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저가주택 건축에 나설 예정이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스타일 주택’으로 명명된 저렴한 집 100만 채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건설업체들이 저가주택을 ‘내집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나오자 뉴욕, DR 호튼, 풀 테그룹, 톨 브라더스, 테일러 모리슨 흄, KB홈 등 대형 주택 건설업체들의 주가



대형 건설업체들은 ‘트럼프 스타일 주택’ 100만채를 건설할 계획이다.

는 이날 장 초반 5·7% 정도 상승세를 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제안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이 지속되는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주

여 달러 이상의 주택 공급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택 건설업체들과 백악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날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주택 구매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택 건설업체 ‘타이니 투 빌더’에 의하면 “최근들어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정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애나데일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김명식 씨는 “내집 마련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저가형 주택을 많이 만들어 보급하는 일은 환영할만 하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김성한 기자

연방 중소기업(SBA)이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개편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SBA 대출은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자(LPR)는 물론 소수 지분의 외국인 참여도 전면 배제된다.

SBA는 지난 2일 발표한 정책 공지(SBA Policy Notice)를 통해 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SBA 대출 허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BA의 핵심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7(a) 및 504대출 전반에 적용되며,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보유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공식 폐지됐다.

특히 영주권자의 지위 변화가 주목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SBA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 왔으나, 새 지침에서는 영주권자의 지분 참여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영주권자는 신청 기업은 물론 운영회사나 자산 보유회사 형태로도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이번 조치로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과 이민자 중심 중소기업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 관계자는 “SBA 대출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 사업자에게 사실상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정책 금융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 거주자인 영주권자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SBA 대출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민자 사업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

의회 통과 예산안에 트럼프 서명...‘부분 셧다운’ 종료

미네소타발 ‘이민갈등’ 중심에 선
국토안보부 예산은 열흘뒤 고갈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날 확정된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워싱턴 DC 소재 의회의사당 전경.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이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 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해 도달해야 한다.

파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액을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손금 아끼 블랑지 컬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일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풀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카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풀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고후
서류 처리

치료 전문
LMT마사지

각종
보험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미 특사·이란 외무, 6일 회담

이스탄불서 핵 협상 논의 합의점 찾을 지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력을 이란 인근에 배치하며 중동에 전문이 업습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일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6일 트루키 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양국 간 핵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또 다른 소식통은 6일 회담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면서도 실제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그간 이란 핵무기 개발을 두고 지속돼 온 협상 결렬과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으로 마무리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 된다.

전 세계의 시선은 이번 회담이 중동 지역에서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란에 군사 공격을 위협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지역 친이란 대리 세력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반해 이란은 핵 개발 문제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달 30일 하칸 피단 트루키 예 외무장관과 이스탄불에서 회담한 뒤 “이란의 국방력과 미사일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트루키 예와 이집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의 최근 외교 중재 노력의 결과라고 악시오스는 짚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날 트루키 예 피단 장관이 아라그치 장관과 다시 통화해 회동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이란이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우선 대화를 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군사작전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인플레 꺾였는데…체감 경기는 한겨울

물가 지표상 안정세 불구

업계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잡혔다”고 말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도 한파 속에 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주요 기관의 최근 통계보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LA·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물가 지수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3.1% 상승했다. 이는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 40년 평균과 거의 같다. 2022년 기록했던 6.9% 급등기와 비교하면 확연한 안정세다.

전국 물가도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 인플레이션은 2.6%로, 2024년(2.9%)보다 낮았고 40년 평균(2.8%)에도 못 미쳤다. 수치만 보면 물가는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계의 체감은 확연히 다르다.

문제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과거의 저물가 시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물가는 1986~2008년 연평균 3.3% 상승했다. 변동성은 컸지만, 당시엔 부동산과 IT 거품 등 특정

국면에 국한된 상승이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달랐다.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되며 2009~2020년 물가 상승률은 연 2.1%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1.5%였다. 많은 가정이 ‘물가 걱정 없는 시기’를 경험했다.

이 평온은 코로나 19로 깨졌다. 공급망 붕괴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맞물리며 지난 5년간 캘리포니아 물가는 연평균 4.2%, 전국은 4.5%로 급등했다.

수치로 보면 더 분명하다. 통계 자료들에 따르면 2009~2020년 캘리포니아 생활비 상승률은 28%였으며, 이후 5년

간추가 상승률은 무려 23%에 달했다.

불과 5년 만에 이전 12년에 맞먹는 물가 상승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현재 상승률’이지만, 가계는 ‘누적된 가격 수준’을 기억한다. ‘얼마나 더 오르고 있나?’보다 ‘이미 얼마나 비싸졌나?’가 체감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업계의 평균값일 뿐, 각 가정의 소비 구조는 다르다. 여기에 고정소득층이 받는 타

격까지 더해지면 통계와 현실의 간극은 더욱 커진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임금 상승이다.

캘리포니아 중간 가계소득은 2024년 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5.2%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12년간 평균(2.7%)의 거의 두 배다. 전국도 같은 흐름이다. 최근 4~5년간 소득 증가율은 과거보다 뚜렷이 높았다.

임금 상승은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다. 결국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급등은 공급 충격뿐 아니라 임금과 소비가 동시에 뛰어오른 결과”라며 “정치권과 대중이 이 연결고리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플레이션은 지표상 안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겪은 급격한 가격 점프는 이미 생활비의 기준선을 끌어올렸으며, 대부분의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보다는 달을 방법을 매일 찾고 있다.

최인성 기자



D-2, 밀라노 선수촌에 걸린 태극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3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빌리지 선수촌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김종호 기자

기대수명 79세… 역대 최고

여성 81.4세, 남성 76.5세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79세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78.4세 보다 0.6세 증가한 수치다.

기대수명은 의학 발전과 공중보건 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76.5세 미만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며 이번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대수명은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2023년 81.1세에서 2024년 81.4세로 증가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75.8세에서 76.5세로 늘어났다.

전국 사망률 역시 감소했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50.5명(2023년)에서 722.1명(2024년)으로 전년 대비 약

4%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전국 사망자는 2023년 307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만 8000명 감소했다.

CDC는 이번 기대수명 증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심장병·암·약물 과다복용 등 주요 사망 원인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4년 주요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과 암, 비의도적 부상 등 3가지로, 전체 사망자의 약 70%를 차지했다. 다만 각 원인별 사망률은 모두 감소해 전반적인 기대수명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윤서 기자



워싱턴 날씨 (°F)
2월 4일(수) 36-21

5일(목) 33-18 8일(일) 27-17

6일(금) 35-25 9일(월) 34-20

7일(토) 28-11 10일(화) 41-28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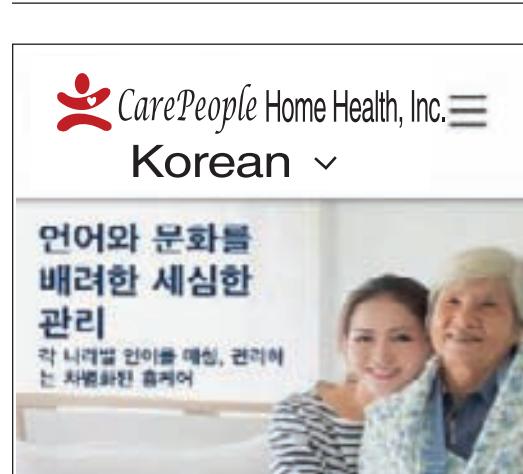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49-7629



SALE 특집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집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½



Care People
Home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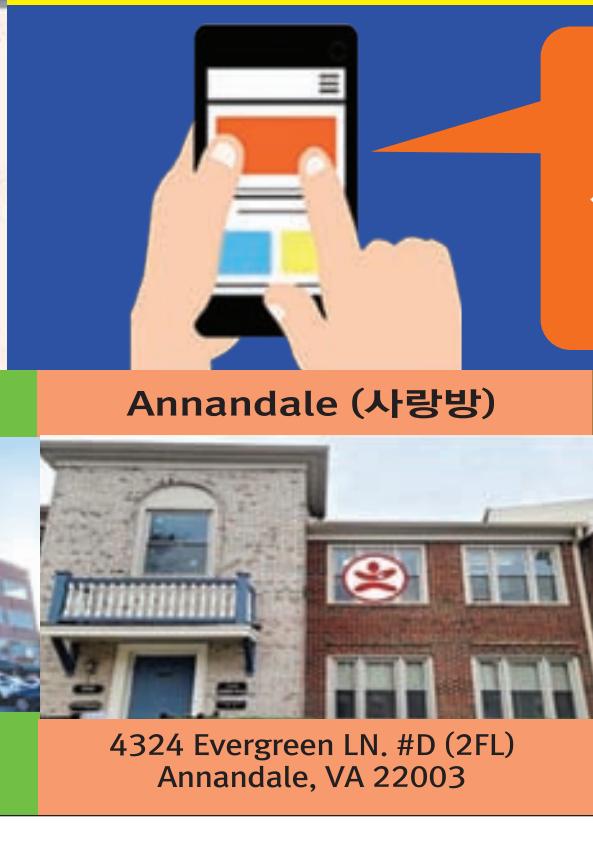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년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셀프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2/9 ~ 2/13 → 전화 예약 필수!
Home Care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브랜든 김, 한인 2세 TJ과학고 출신
쇼트트랙과 공부 병행, 의사가 목표

[사진 AP/릭 브라우어]

승려들 '평화 행진'… 애난데일 지나갈 예정

텍사스-DC, 2300마일
11일 링컨기념관 집회

텍사스 주에서 워싱턴 DC 까지 '평화를 위한 행진'을 벌이고 있는 불교승려들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조경 애난데일을 통과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정적인 순례 일정에 따르면 수도 사들은 이번 주 중 프린스윌리엄 카운티에 도착해 리치몬드 하이웨이인 1번 국도를 따라 워싱턴 DC 쪽으로 향할 계획인 가운데 애난데일, 폴스처치, 세븐코너를 지나칠 예정이다. 앞서 수도사들은 지난해 10월 29일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있는 담마세티야 사원에서 장장 2300마일의 여정을 시작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오후 2시 링컨기념관에서 평화 집회를 개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순례에 참여한 18명의 승려들은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



[사진 페이스북 캡처]

순례단 승려들이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하고 있다.

아, 프랑스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례단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여정 설명에 "저희는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따르며 깨달음의 길을 진심으로 걷는 승려이자 제자이다. 자비, 지혜, 그리고 마음챙김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뒤는 토대"라고 적었다.

또한 승려들은 "세계가 전쟁, 폭력, 분열로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승가의 사려 깊고 자비로운 존재가 우리 시대의 집단적 고통을 달래고 변화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강조했다.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하고 있는 승려들은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면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성한 기자

페어팩스 출신 한인 2세 동계올림픽 출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출신의 한인 2세 브랜든 김(24세, 사진)이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김씨는 어린 시절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TV 중계를 보고 쇼트트랙에 입문해 2018년 미국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미국 선발전에서는 경기 도중 넘어지면서 올분을 삼켜했다.

학업 이력도 눈길을 끈다. 그는 토머스제퍼슨 과학고를 거쳐 스텝포드 대학에서 컴퓨터과학 전공을 하고 있다. 이른바 운동 특기생이 아니라 일반학생으로 진학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

는 흔치 않은 케이스다.

스텝포드 대학에는 아이스링크가 없어 학기 중 훈련 여건이 제한적이지만 그는 2025년 9월 열린 전미선수권대회에서 3관왕(500, 1000, 1500미터)을 차지했으며, 500미터는 13년 만에 미국 최고기록(39.83초)을 경신하며 강한 존재감을 보였다. 진로 계획도 또렷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며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를 전공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는 김씨 외에도 앤드류 허(24세)와 유니스 리(22세)도 참가한다. 대회 개막식은 오는 6일(금)이며, 쇼트트랙 경기는 10일(화)부터 시작된다.

김윤미 기자



이화여대 워싱턴DC 지회 동창회 봄 특강 이화여대 워싱턴DC 지회 동창회(회장 김원)는 지난 30일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파크관(NMAA)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전시를 공동 관람했다. 오는 3월 7일에는 Westwood Country Club에서 이정실 교수(조지워싱턴 대학)가 진행하는 한국 미술사 특강과 함께 새 동창 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알벗 기자

워싱턴DC 학비지원 장학금 신청 접수

8월 21일까지 진행

각종 프로그램 다양

워싱턴DC에서 제공되는 각종 장학금 및 보조금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DC 학비 지원 보조금(DCTAG)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7개월 간 진행된다.

DCTGA 자격을 얻으려면 시민권자 이거나 적격한 비시민권자 신분이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 증명되어야 하고, 최소 파트타임 학위 취득 과정 학생으로 학사 학위 과정에 등록이 허가되었거나 등록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시장 학생

부 학부 프로그램, OSSE 장학생, 여름 심화 프로그램, 연방 상원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DCTAG에 지원하고 다른 보조금 및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이메일 (Melanie.Fleming@dc.gov)로 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불륜 커플 아내 살인사건 유죄 평결

가정부와 공모해 패륜 행각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2023년 2월 헌던 주택에서 발생한 2명 살인사건 피고인 브렌던 벤필드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12명은 피고인이 당시 함께 거주하던 브라질 출신의 가정부 줄라 이나 페레즈 마갈레스와 공모해 자신

의 부인 크리스틴과 또 다른 남성을 살해한 뒤, 사건을 조작해 외부 침입, 정당방위 상황처럼 꾸미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다른 남성이 배우자를 공격하고 있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모와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가정부와 연인 관계였고, 온라인 성인 커뮤니티 계정을 이용해 피해 남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살해해 그 책임을 남성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죄 평결에는 총기 사용 관련 혐의와 사건 당시 어린 자녀가 집 안에 있었던 점과 관련한 아동 위험 방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8일 예정돼 있으며, 피고인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센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온라인 경험을 바탕으로
즉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LA 한인 교회 절도 피해 발생 주의

예배 시간 틈타 사무실 침입
유사 수법 반복, 상습범인 듯

최근 LA 지역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교회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는 점과 주일 예배 시간 등을 이용해 교인들이 없는 사이 건물 내부로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LA 한인타운 내 샘 커뮤니티교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11시 42분쯤 발생했다.

이 교회 샘 신 목사는 “일요일 오후 갑자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한 대형 소매업체에 대한 결제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며 “계속 교회에 있었기 때문



샘 커뮤니티교회 CCTV에 포착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오른쪽 사진)과 용의자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회색 BMW 차량. [샘 신 목사 제공]



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사무실에 가보니 내 지갑과 현금 300달러 등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CCTV를 검토한 결과, 한 흑인 남성이 회색 BMW 차량을 타

고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사무실에 몰래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CCTV 영상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용한 차종과 번호판 등을 확보해 올림픽 경찰서에 절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용의자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은 30대 전후반으로, 과마 머리에 키는 약 6피트 정도다.

신 목사는 “신고 과정에서 경찰서로 부터 최근 LA 지역 한인 교회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 피해 교회로부터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영상도 전달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침입했던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샘 커뮤니티교회 외에도 최근 절도 피해를 당한 한인 교회는 LA 지역 호바트 불러바드 인근의 ‘예수사랑비전교회’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해당 교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교회에 몰래 침입하려다 시니어 교인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영상에서 이 남성은 어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도 교회 문을 열며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신 목사는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외부인의 출입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다”며 “이제는 문을 잠그는 등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인 교회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대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길 기자

도산 기념관 예산 확보 주장도 진실 공방

사업회 “한국 정부 지원 의향”
보훈부 “계획서도 받지 못해”
국회의장, 사업회 측 주장 부인

미주도산기념관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리버사이드시의 부지 제공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미주도산기념사업회(회장 곽도원) 측의 한국 정부 예산 확보 주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도원 미주도산기념사업회 회장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사업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부는 “규정상 지원이 가능할 뿐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며, 현재

관련 사업계획서 조차 제출된 바 없다”

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곽 회장은 지난 2024년 10월 한국 방문 당시 한국 정부 측이 미주도산기념관 건립 비용의 약 30% 지원 의사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부 측은 정무적 이유에 따른 50% 지원 가능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그는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보훈부 규정상 도산 안장호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 기념관 건립 비용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한국 방문 당시에도 보훈부 과장급 관계자들이 규정집을 보여주면서까지 30% 지원 규정을 설명했다”며 “정무적인 이유가 있다면 보훈부 장관 등을 통해 50%까지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보훈부 측 입장은 다르다.

지난 1일 보훈부에 따르면 미주도산기념사업회는 최근까지 미주도산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훈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업 취지 자체가 의미 있더라도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 편성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훈부 측은 정무적 이유에 따른 50% 지원 가능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외 사적지 관련 사업비는 규정상 최대 30%가 원칙이며, 정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50%까지 편성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후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해당 사업이 국외 사적지 성격인지, 단순 기념관 사업인지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원이 확정되면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보훈부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도 예산 지원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우 의장을 만났을 당시 우 의장이 기념관 건립 기금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고, 이를 밝힌 바 있다.

곽 회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우 의장이 먼저 ‘올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기념관 관련 특별예산 편성 역시 우 의장이 먼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의장실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도산기념관 건립을 위해 별도로 예산 편성을 지원하겠다고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예산 심사 시기에 해외 독립운동가 공원 조성 지원 등에 대한 부대 의견을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 회장은 2일 리버사이드시 부지 제공 미결정 의혹 제기에 대해 “리버사이드시로부터 제안받은 여러 후보 부지 중 미주도산기념관 취지와 조건에 가장 적합한지를 양측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상황이 아니라 정해지기 위한 정상적인 협의 과정 한가운데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준 기자

50대 한인 태권도 사범
친인척 아동 성폭행 기소

미주리주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온 50대 한인 사범이 아동 성폭행 및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매체 KCTV5는 레이모어 지역 ‘팍스 아카데미 마셜 아츠’를 운영해온 태권도 사범 박세준(Se Chun Pak, 56·사진)씨가 14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1급 성폭행 2건과 근친상간 2건 등 모두 4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피해 아동은 박씨와 친인척 관계인 아동으로 알려졌다.

리스 서밋 경찰국은 지난해 9월 29일 리스 서밋의 한 주택에서 성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조사 과정에서 박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박씨를 기소했으며, 같은 달 8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어 10일 뒤 대체심이 박씨를 공식 기소했다. 박씨는 현재 잭슨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강한길 기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90대 노인 평생 모은 81만불 증발

‘위조수표’ 사기, 웰스파고 뒷짐
60일 규정 내세워 보상 거부
논란 이후 피해액 보전 결정

90대 시니어가 평생 모은 저축금 수십 만 달러를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1일 ABC7에 따르면 90세의 어빙 로

젠크버그(사진)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웰스파고 은행 저축계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출이 이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81만 4000달러에 달했다.

로젠크버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제3자에게 권한을 준 사실

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로젠크버그가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은행 측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은행 측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점이다. 이후 웰스파고 측은 피해 발생 후 신고까지 시간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사기 보상 요청을 거부했다. 은행 측은 60일 이내 신고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로젠크버그의 조카이자 재정 업

무를 돋고 있는 데이비드 세틴은 현금화된 수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서명이 명백히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세틴은 “고령과 건강 문제로 인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은행 측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단기간에 거액의 인출이 반복됐음에도 이상 거래로 탐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

1석 5조 통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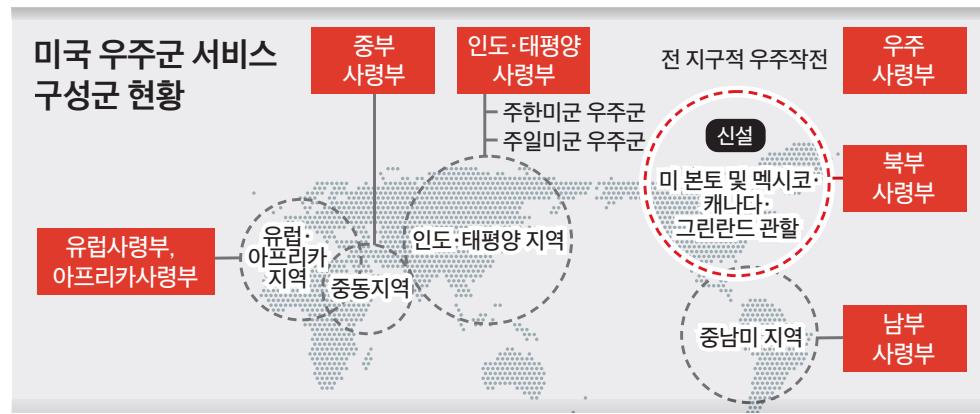
비지니스 (VA)
703.865.8788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비지니스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우주까지 겨눈 미 돈로주의...‘그린란드도 관할’ 우주군 창설

미 본토·캐나다 등 맡는 북부사령군
중남미 담당 남부사령군 이어 출범
‘서반구 패권’의 미국 최종 방어선
해상·공중 넘어 우주까지 확장시켜

미국이 본토를 직접 관할하는 ‘북부사령부 우주군’(Space Forces Northern: SPACEFOR-NORTH)을 공식 창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에 담긴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해역) 패권 재건’ 전략이 우주 영역으로 더욱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기관지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에 따르면, 미 우주군은 지난달 30일 미 콜로라도주 피터슨 우주군 기지에서 북부사령부(USNORTHCOM)에 배속되는 서비스 구성군인 북부사령부 우주군 창설



식을 개최했다. 서비스 구성군(Service Component)은 특정 전투사령부(Combatant Command, COCOM)에 배속돼 해당 군의 전력을 전문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해 두는 조직 단위다.

미 우주군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여섯 개의 서비스 구성군을 창설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우주군, 중부사령부 우주군, 우주사령부 우주군, 유럽·아프리카사령부 우주군, 그리고 인도·태평양사령부 우주군 산하에 하위 구성군으로 편제된 주한미군 관할 한국 우주

군과 일본 우주군 등이다.

이들 모두 해외 전구에서의 대외 작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 창설했던 북부사령부 우주군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그린란드와 카리브해 일부 지역까지 관할 범위에 포함된다. 북미 본토를 직접 관할하는 우주군 구성군의 출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미 남부사령부에 배속된 ‘남부사령부 우주군’(SPACEFOR-SOUTH)이 창설된

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남부사령부에 배속된 우주군은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관할하며 우주 전력 통합을 담당한다. 열흘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 방위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이를 두고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는 “서반구에서의 전략적 역량 강화라는 미 국방부 우선순위에 부합한다”고 평했다.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둘어 미국의 ‘우주 패권’ 아래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NSS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서반구에 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1823년 공표한 면로 독트린의 트럼프

버전인 이른바 ‘돈로 선언’이다. 이번 북부사령부 우주군 창설은 미국이 서반구 패권의 최종 방어선을 해상과 공중을 넘어 우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NDS도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서반구 전체를 사실상 미 본토의 전략적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북부사령부 우주군의 핵심 임무는 미사일 경보 및 추적, 위성 통제, 우주 영역 인식, 전자전, 우주 기반 정보·감시·정찰 등이 포함된다. 모두 미 본토 방어와 전략 억제 능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들이다. 챔스 솔츠먼 우주군 참모총장은 북부사령부 우주군 창설식에서 “(미국의) 모든 전투사령부에 우주군 서비스 구성군을 구축하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주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력과 효과적인 운용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X 알고리즘 조작해 내정 개입” 프랑스 검찰, 머스크에 소환장

유로풀 협력해 X 사무실 압수수색
머스크는 작년 “정치적 수사” 비난

프랑스 검찰이 X(옛 트위터)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사진)를 소환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X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프랑스 내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X 최고경영자(CEO)에게) 4월 20일 자 발적 진술 청취를 위한 소환장이 발송됐다”며 이날 국가사이버수사대, 유로풀과 협력해 X의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X가 프랑스 법률

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지난해 1월 X의 알고리즘을 특정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면서 프랑스 정치에 외세 개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또, 최근 X의 인

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이 아동 포르노와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등을 생성해 유포한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파리 검찰청은 이같은 사실을 X 계정에도 올린 뒤 “X를 떠날 것이며, 앞으로는 링크드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타그램은 테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수사 대상인 X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프랑스 검찰이 지정한 날짜(4월 20일)에 대해 머스크가 즐겨 사용하는 숫자(420)와 겹친다며 주목하는 반응도 나왔다.

머스크는 2018년 X를 통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화 하겠다”고 밝혔고, 2020년 테슬라 모델S의 가격을 6만9420달러로 책정하기도 했다. X 측은 아직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머스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프랑스 검찰이) 정치적 동기로 벌이는 범죄 수사”라고 비난했다. 유성운 기자

러, 우크라 에너지시설 공격 재개...긴장완화 ‘물거품’

밤새 드론·미사일 500여발 발사
우크라 “혹한 공격” 비난

미국이 중재한 ‘일시 휴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했다. 미·러·우크라이나 3자간 종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3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밤새 드론 450대, 미사일 60발 이상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공격은 수도 키이우와 제2 도시 하

르키우, 남부 물류거점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DTEK은 이번 공격으로 화력발전소 설비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르키우에서는 에너지 인프라가 3시간 넘게 공격받으면서 난방·전력 공급이 끊어진 가구가 속출했다. 이날 하르키우의 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졌다. 키이우에서는 아파트 3동과 유치원 건물 1곳이 파괴됐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공격으로 키이우의 아파트 1천170동에 난방 공급이 끊긴 상태다. 북부 도시 수미에서도 아파트 2동이 파괴됐고 중·서부 지역의 에너지 시설도 공격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잠시 멈췄던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이 재개되면서 긴장 완화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린 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3자 회담의 외교적 노력도, 미국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약속도 이런 러시아를 막지 못했다”고 썼다.

전쟁 후 처음으로 3자 회담이 열리는 등 종전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공세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트레비 분수 동전 던지려면 2유로 이탈리아 로마시가 3일부터 대표적 관광지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질 때 2유로(약 3400원)의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6년 1월 20일 독거 노인 쌀 전달

후원 감사의 말씀 결산 보고 (2026년 2월 4일)

감사 최희대

수입 내용(후원자)	금액	지출 내용	금액
1. 강수자 노인연합회 부회장	\$500	1. H 마트 쌀 150포 구입	\$1,650
2. 신디 양 State Farm Insurance	\$300	2. 광고 및 결산보고	\$350
3. 미주동중부한인회연합회 회장 서재홍	\$300	3. 현수막 제작	\$120
4. 유파이낸셜 그룹	\$200	4. 후원 인쇄 및 편지 발송 (80군데)	\$125
5. 코너스톤 종합보험 대표 오향제	\$200	5. 행사 후 임원 식사대	\$137
6. MD 총한인회 회장 정현숙	\$100		
7. 에버그린시니어데이복지센터 임현숙 선생	\$100		
8. 미주통일연대 김유숙 회장	\$100		
수입 계	\$1,800	지출 계	\$2,382
수입 \$1,800 + 전월 잔액 \$264 = \$2,064 - 지출 \$2,382 = -\$318 (회장 지출)			

[공동 행사] 버지니아 한인회(VSOK) /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회장 우태창

새해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일정: 01.23 ~ 02.18

JUNG KWAN JANG



보자기
포장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달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는 것을
넘어
좋은 기운과



‘무료 배송 가능’

*\$300 이상 내방 구매고객 한정



프리미엄 선물

(천녹류 4종, 달임액 3종, 톤류 2종)

Buy 1 Get 10% OFF
Buy 2 Get 20% OFF

제품 구매시, 보자기 포장 제공



우리아이 CARE

(아이패스, 흥이장군)

Buy 1 Get 10 Packs
Buy 2 Get 20 Packs
Buy 3 Get 1 Box (30 Packs)



혈당, 근력 관리

(GLPro Double Cut)

GLPro Double Cut 구매시,
GLPro AKKER MUSCLE 증정

애난데일 지점

703.642.1304

7326 Little River TPKE., #D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703.815.3434

13822 Braddock Road, #C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410.480.2304

9380 Baltimore Nat'l Pike, #109
Ellicott City, MD 21042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청래표 1인 1표제 가결 권리당원 입김 더 세진다

찬성 60.6%…부결 두달 만에 통과
정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
원이자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가 현행 20대1에서 1대1로 변화하
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입김은 더 거
세질 전망이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찬
성 312명 60.58%, 반대 203명 39.42%
로 의결 안건 2호(1인 1표제) 가결을 선
포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지난달 16
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중앙
위에 다시 넘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24일 1인 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전체
당원 중 31.63%가 투표한 결과 85.3%
가 찬성하고 14.7%가 반대했다. 이날
발표된 투표는 2일 오전 10시~3일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통과 직후 기
자간담회를 열고 “역사적인 1인 1표 시
대가 열렸다”며 “가장 직접적인 효과
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정 대표는 “누구라도 당원에게
인정받으면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받
는, 당원 주권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힘 있는
계파가 공천권을 나
눠 갖고, 공천 기득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
주당 권리당원들은 국회의원 1표, 당
대표 1표, 대의원 1표, 권리당원 1표인
평등한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것”이라
며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
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그들에
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6개월간 줄곧 언론 인터뷰는
물론 기자들과의 문답을 극도로 자제
해온 정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즉석 질의응답 시
간도 가졌다.

정 대표는 ‘찬성 비율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축구 경기에서 1대0으
로 이기든 3대0으로 이기든 이긴 건 이
긴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몇 퍼센트로 통과시켰다
는 디테일보다는 1인 1표제가 통과됐
고 시행됐다는 데 저는 더 큰 의미를 두
고, 투표율과 찬성률엔 마음 아프지 않
다”고 했다.

당에서는 “합당 문제로 당이 혼란한
와중에 정청래 연임 가도가 만들어졌
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
원은 “연임을 원하는 정 대표가 간절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3일 오후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대표가 통과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아니
라 1인 1표제인데, ‘반(反)정청래파’가
합당 반대에 매달리면서 정 대표가 ‘통
합’이라는 명분을 얻어 숙원사업 처리
에 탄력이 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2 전당대회에
서 권리당원 투표 66.48%·대의원 투표
46.91%를 받아 당선됐다. 권리당원 표

심에서 정 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
는 만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차등
이 사라지면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정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접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당내 시각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 ‘판
지일보 게시판’도 환호가 줄을 이었다.
게시판에는 “계파정치 하는 의원들 다

덤벼라. 너나 나나 이제 한 표다” “정청
래용 덕분에 마침내 귀족정에서 공화
정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게 됐다”는 글
이 쏟아졌다.

이런 와중 이날도 당에선 합당을 두
고 혼란상이 빚어졌다. 정 대표가 합당
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언
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전날부
터 차례로 일대일 오·만찬을 가졌지만,
이들은 이날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임기 초 무리한 합당 추진으로 에너지
를 소모하지 말라”는 등의 정 대표와의
대화 요지를 정리해 올렸다.

강 최고위원과 황 최고위원도 유튜
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집’에 나와 “당
대표가 혼자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
다”(황명선)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한준
호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합당 관
련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을 했다.

이에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의
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정 대
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게 공격의
핵심인데,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정 대
표는 선수별 모임을 통한 합당 관련의
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4일에는 재
선 의원 모임, 5일에는 전날 합당 반대
에 의견을 모았던 초선 모임 ‘더민조’와
간담회를 갖는다. 강보현·오소영 기자

오세훈, 연일 장동혁 핵심 비판… 일각 “최악 땐 선 굽고 독자 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 접전에 위기감
당내 “선거 이후 차기 당권 염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사태를 놓고 연일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
운트’가 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
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말을 안 해도 속은 속임수”라고 핵심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
명 직후 “장 대표가 당을 자멸로 몰아
넣었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오
시장은 이날도 “노선 변화가 없다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의 강공은 당내에도 당혹감
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3
일 “예견됐던 한 전 대표 제명에
오 시장이 ‘장 대표 퇴진’ 카드
를 꺼내들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초에도 장 대표
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와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세력과의 절
연 등을 요구했지만 퇴진을 언급 하진
않았다.

오 시장의 강공 전환 배경에 대해 국
민의힘에 대한 서울 지역 민심이 최악
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작
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12
월 29~30일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
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오 시장 38%,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39%로 오
차별위(±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수

도권 지역 의원은 “장 대표의 ‘우향우’
노선이 오 시장에게 주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정부·여당의 악재
를 당내 논란이 뒤이어지는 일이 반복
되면서 오 시장의 불만은 커졌다. 오 시
장 측 인사는 “지난달 29일만 해도 이
재명 정부가 현실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동
훈 제명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며 “오 시장도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장 대표와 선을 긋고, 독
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

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
힘 초선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
산·경제 등 현실 이슈와 중도 민심에 좌
우된다”며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
와 선을 그어둬야 향후 지도부발(發)
리스크가 또 불거지더라도 타격이 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차하면 불출마를 선
언하고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면 당권에 도전하는 것도 오 시
장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중진 의원)
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
자는 “염두에 두지 않은 시나리오”라
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중앙일보는 위성던 한인 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부동산 재테크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20년 전문!**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앤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매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감사 마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매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앤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HANS TRAVEL



친구 추가! 실시간 상담 가능

HANS WORLDWIDE

중국 실크로드

인류 문명이 교차했던
천년 황금빛 길을 따라서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
8박9일 4/20(월)~4/28(화) 마감임박!

\$3,490 항공불포함 인솔자: 조안 한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 Small Group Tour: 최대 15명 • 1등석 기차
- 전일정 딜럭스 호텔 • 현지 맛집
- 전문 한인 가이드



남 코카서스 3국 여행

조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12박13일 6/1(월)~6/13(토)

\$4,490 항공불포함 인솔자: 조안 한

더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또 하나의 고대 실크로드의 역사,
새로운 여행, 더 깊이, 더 멀리,
더 많이 경험하기!"

봄에 만나는 진짜 유럽!!

베네룩스 3국

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8박9일 4/9(목)~4/17(금)

\$3,890 항공불포함 인솔자: 세라 정

마감임박! 노옵션!



빠른 마감! 예약 서두르세요!

스페인 & 포르투갈

2차!
앵콜투어

11박12일 5/2(토)~5/13(수)

\$3,790 항공불포함 인솔자: 애나 김

1차 마감!



가장 클래식한 유럽 여행!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8박9일 5/18(월)~5/26(화)

\$3,290 항공불포함 인솔자: 세라 정



한스 2026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마감

02/06(금)~02/21(토) 두바이, 아부다비+남인도+스리랑카 마감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마감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마감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마감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재키 조

일본+한국+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한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마감임박! \$5,995 재키 조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마감임박! \$3,490 조안 한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마감임박! \$3,890 봄 특선! 세라 정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차 마감

05/02(토)~05/13(수) 스페인 & 포르투갈 2차

11박12일 \$3,790 애나 김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마감

05/18(월)~05/26(화)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8박9일 \$3,290 세라 정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5,995 재키 조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안 한

06/15(월)~06/25(목)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10박11일 \$6,695 재키 조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6,695 재키 조

07/27(월)~08/01(토) 캐나다 록키 벙쿠버 IN/OUT

5박6일 \$2,190 항공포함 세라 정

08/06(목)~08/12(수) 알라스카 앵커리지호텔 업그레이드

6박7일 \$3,090 항공포함 애나 김

한스 스페셜 당일 투어

한국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다!

어쩌면 해피엔딩

앵콜 5차 2026년 2/21(토) \$289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1차~4차 마감

대형버스



워싱턴 최초 벤츠 VIP 대형 리무진 버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in NY

THE MET

2/28(토) 당일투어 \$199

한국어 설명 도슨트 포함

고흐, 렘브란트 등
세계적 명작을 만나는 기회

필라델피아 플라워쇼

3/7(토) 당일투어 \$199



대형버스

ROOTED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2/16(월)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3박4일	2/26(목)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 출발 \$1,350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쉬모어/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3박4일 5/22(금)~5/25(월) \$1,040 항공불포함
옐로스톤 5/8부터 3박4일 \$950 항공 불포함 매주 월, 금 출발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는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원식의 개헌 배수진…“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현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국민투표법이 결립될 돼선 안 돼” 국힘 지도부에도 설득 총력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 선 국민투표법이 2월 3일까지는 개정 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우원식 (사진) 국회의장이 2월 설 전 개정을 강조하는 데도 선관위 의견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

에서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결립들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우 의장은 그간 주춤했던 개헌 흐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7일엔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끼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흥의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

석을 접견할 때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현재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 시한을 넘겨 작동 불능의 상태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에 국민투표 진행 절차 검토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 “2월 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투표 등이 국민투표법에 들어오게 되면 별개의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선거인 통합 명부 등을 준비하려면 안정적으로 필요 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4개월은 정말 넉넉히 잡은 기간”이라며 “2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

는 “전날 5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우 의장이 국민투표법도 신속처리 법안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연설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야당도 설득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은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수차례 송원내대표와 유상범 국힘 원내수석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도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한병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극우 입당한 국힘은 내란범 갤러리 통일교·신천지 특검, 정교유착 단절” 국힘 “민생 외치면서 특검 만능주의” 결립들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란 완전 종식’을 내세우며 특검과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하며 개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를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이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입당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일교 사건 등에 대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했다.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 등을 꼽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입당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일교 사건 등에 대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광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높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임현동 기자

코스피 역대급 국내 증시 시가총액 첫 5천조 돌파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5천조원을 넘어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총 5천3조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4천372조원, 코스닥은 628조원, 코넥스 3조원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던 전날 대비 306조원 불어 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 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쳐 2020년 3월 24일 8.60% 이후 5년 10월에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올랐다.

전날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

도(Fed·연준)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으로 족발된 충격파를 흡수한 시장은 빠르게 회복에 나섰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오전 9시 26분에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넘게 치솟으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흐름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11.37%)의 상승률이 2018년 액면분할 이후 일일 상승률 최고치 기록(2020년 3월 24일 10.47%)을 경신하고 SK하이닉스[000660]도 9.28% 뛰는 등 대형 반도체 주가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시가총액 991조5천394억원을 기록, 코스피 사상 최초 보통주 기준 시가총액 1천조원 돌파도 눈앞에 뒀다.



코스피가 3일 7% 가까이 급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3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폴 샹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 종 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할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안,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환경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자동차 사고후유증
- 척추디스크통증
- 두통, 목, 허리 통증
- 손, 발 통증 및 저림
- 어깨 결림 및 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기)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이 대통령 “집, 제발 버티래도 파는 상황 만들어야”

“시켜서 팔면 정책 효과 없다는 뜻 경제적 이득이란 생각들게 해야”
SNS선 “다주택 눈물? 청년 피눈물”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부동산 불폐신화’를 겨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1·29 공급 대책 이후 첫 카드로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제발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정책의 주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 드린다”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버티고 힘써서 바꾼 사람만 득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마다 차별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자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요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

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접근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참모는 1주택만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 실장 본인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불을 붙였고,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집을 파는 대신 그해 8월 사퇴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라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수년이 걸리는 탓에 당장 지방선거에 분명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임기 전체로 봤을 땐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니”라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 없다”며 “반드시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 기흥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팔기 위해 내놨다.

오현석 기자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서 쓰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최장 6개월 유예

세입자 끈 다주택자 매물 규제 보완 계약 만료 때까지 실거주 유예 거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이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매도 계약을 맺었다면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서울 21개 구, 과천·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

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의왕·하남, 용인 수지 등은 6개월 내 잔금·등기 외료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강남 3구 등 기존 조정 대상지역은 잔금·등기 기한을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토지재 매각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매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안효성 기자

이 대통령 “공정위 권한 너무 크다 전속고발권 없애거나 국민에 줘야”

공정위장 “고발권 확대, 제도 개편”

고발권 늘면 기업 부담 커질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3

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밀 가루·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

찰 고발이 있어야 담합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됐지만, 검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기업 입장에선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를 동시에 받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나. 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하면서,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 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라며 “획기적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

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과정금 현실화 등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부당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과정금을 관련 매출의 최대 20%에서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과정금의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안효성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럭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2025 A Return
모든 절약은 헛곳에서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2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4월 24일부터 액상 전담도 '담배'…유사니코틴은 빠졌다

(합성니코틴)

‘망고맛’ ‘케이크향’ 등 광고도 금지
금연구역서 흡연 땐 10만원 과태료

앞으로 합성니코틴은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퀸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망고맛’ 등 청소년을 노린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에도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범위를 기준 ‘연초의 일’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건 37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데,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일’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은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

되면서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모든 담배 제품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망고맛’, ‘뉴욕 치즈케이크향’처럼 청소년·젊은 여성들을 노린 맛·향 마케팅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과일이나 디저트 향을 강조하는 문구·이미지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도 규제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담배업계는 이미 합성니코틴을 넘어 유사니코틴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규제가 한발 늦었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유사니코틴 전자담배는 ‘무니코틴 담배’, ‘제로 담배’를 표방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자판기나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시흥 SPC삼립 공장 화재 3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60여 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Please share” 회의도 보고서도 ‘영어’ 쓰는 기업들

〈공유해 주세요〉

국내 대기업들이 일할 때 쓰는 ‘주 언어’를 바꾸고 있다. 해외 사업이 중요해지고 외국인 임직원도 많아지면서 한 국어만 쓰는 의사소통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3일 세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그룹은 국내·해외법인이 주고받는 문서를 ‘영어로 단일화’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한글과 영어를 병용해 왔지만, 중복 작성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글로벌 표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도 이에 따른다.

삼성은 이미 2023년부터 해외법인 내부 문서와 회의 자료를 영어로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다만 국내·해외법인 간 문서는 한글을 쓸 수 있었는데,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이중 작성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번에 영어로 통

일했다고 한다. 반도체 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와 바이오 계열 일부 조직에선 영어 회의 문화가 자리잡혔다.

현대차그룹도 해외법인과의 공식 의사소통은 영어 사용이 원칙이다.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해외법인과 주고받는 문서는 영문 작성이 관행이다. 핵심 해외법인의 경우 경영진과 실무진이 다국적으로 구성돼 영어 소통이 기본 전제라는 설명이다. 현대차 본사에서 미국법인에 “Congratulations on the Palisade winning the North American Utility Vehicle of the Year. Please share any strategic areas where HQ can provide support. (팰리세이드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본사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언가든 공유해 주세요)”라고 이메일로



국내 직원 대상으로 ‘리더스 토크’를 하고 있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사진 현대차]

요청하는 식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영어 공용어 원칙을 문서로 정리한 사례다. 지난해 3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주요 회의와 해외 사업장 간 소통, 내부 공유 문서에서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기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흐름이다. 외국인 동료와 일하고, 사업 의사결정이 다국적 조직 단위로 이뤄지면서 한국 중심 언

어 체계로는 속도와 효율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당장

외국인과 한국인 직원들이 같은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려면 언어 통일이 유리하다. 세계 관계자는 “이제 영어는 단순히 외국인 대응용이 아니라 내부 협업의 전제이자 업무 구조 개편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회의일수록 영어로 토론 가능한 인력의 참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영어 소통 능력이 회의 참여와 정보 접근의 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영어가 이미 ‘기본 언어’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경우, 모기업인 Coupang Inc가 미국 중심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어서 한국 법인에서도 영어가 공용어로 쓰인다. 최고책

임자 직책을 가진 C(Chief) 레벨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 다수가 외국인이어서 회의 진행은 물론 보고서 작성도 영어로 이뤄진다.

쿠팡은 사내 전문통·번역 인력만 2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단순 번역가(Translator)가 아니라 ‘Bilingual Specialist(이중 언어 전문가)’라는 직함으로 불린다. 특히 쿠팡 C레벨의 경우 전담 통역사가 공식 일정은 물론 비공식 미팅까지 동행하며 한국인 비즈니스 파트너 등의 여조와 주임사, 제스처까지 반영하는 수준의 통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에서는 ‘영어로 일하기’가 글로벌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어 사용 여부가 조직 경쟁력과 협업 속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업종과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우·최현주 기자

“여성속옷 벗기지 말라” 바뀐 심폐소생술…질병청 “망설임 줄이자는 것”

여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속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도록 한 개정 심폐소생술 지침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자라도 여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당국과 전문가들은 국제 가이드라인

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된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브레이저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가슴 부위를 피해 자동 심장충격기 패드(전극)를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의 신체 노출과 접촉 우려를 고려했

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여성 눈치를 본지침”, “사람을 살리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뜻이니”는 반발이 나왔고, 성별 갈등 양상마저 보였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5년 만에 지침 개정을 통해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변화를 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에서 여성 심정지 환자가 신체 노출·접촉

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남성 심정지 환자 보다 심폐소생술, 제세동을 받을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이런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일본 환자 35만 명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

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제세동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필 대한심폐소생협회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LCOR)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버크 타운홈
PENDING
\$565,000
방3/화3.5/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데크&페티오

비엔나 콘도
SOLD
\$325,000
방1/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나사스 콘도
SOLD
\$200,000
방1/화1
쇼핑몰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차고1
PENDING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홉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테이션,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어 활용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 지역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703-259-5617, 410-241-2520

8년 딩크 부부 “집 생기고 직장 안정되니 애 낳게 되더라”

〈DINK·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

첫째 낳은 부부 “청약 당첨 결정적”
신혼부부 “육아휴직 쓸수 있어 계획”
여성 인식 변화 출산 반등에 큰 영향
신생아 대출 등 저출산 대책 효과도

동갑내기 엄정혜·김승훈(36)씨 부부는 8년간의 ‘딩크(DINK·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첫째 아들 ‘호수’를 얻었다. 정혜씨는 2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사실상 출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아이 기르는 건 여성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다. 네녀지 않은 경제 상황에 출산까지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돼 2024년 아파트에 입주했고, 이후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 승훈씨는 “단지 안에서 또래 신혼부부들이 아이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출산을 결심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최근 2년간 아이 낳을 선택을 한 에코붐 세대(1990년대 초·중반

출생) 기준 여성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극심한 출생률 하락 시기 동안 “아이 낳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이 자베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이 갖춰질 경우 출산을 선택하거나 오히려 출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출산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경제적 안정 ▶재택근무 확대 ▶배우자의 도움 ▶출산·육아를 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직장 문화 등을 주로 꼽았다.

3년간 딩크로 지내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황모(33)씨는 “아이가 잊은 이전 회사에 선 일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에 따라 결혼·출산은 항상

2월 엄정혜(오른쪽)·김승훈씨 부부가 아들 호수와 함께 웃고 있다. 우상조 기자

우선순위 밖에 뒀다”며 “이후 정시 퇴근이 보장되고, 애가 둘인 엄마 등료들도 주변에 많아 결혼·출산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결혼한 경찰 공무원 이승연(30)씨는 “공무원이라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쓸 수 있어 자녀 계획에 큰 힘이 된다”며 “산전 검사 지원 등을 받으며 임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나 기업들이 꾸준히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 효과가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 지원 정책과 육아휴직 제도 확대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33만953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아미·오삼권·한찬우·곽주영 기자

90년대생이 말하는 ‘출산 결심 이유’

엄정혜(36)씨, 주부
2017년 결혼
2025년 출산
경기 고양시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
“재택근무 하는
남편의 육아 도움”

이모(30)씨
IT업계 스타트업
2024년 결혼, 2026년
출산 예정, 경기 이천시

“풀 재택근무”
“육아 휴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

이승연(30)씨, 경찰
2025년 결혼
임신 준비 중
부산 부산진구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 가능,
서울 대비
주거비 부담 덜해”

한경희(34)씨
사회복지단체
2023년 결혼, 2024년
출산, 경기 수원시

“어린이 관련
단체라
출산·육아 휴직
눈치 안 보는 분위기”

한모(30)씨, 대기업
2025년 결혼
2026년 출산 예정
서울 서초구

“임신한 뒤에
연장근무 없이
오후 4시 끝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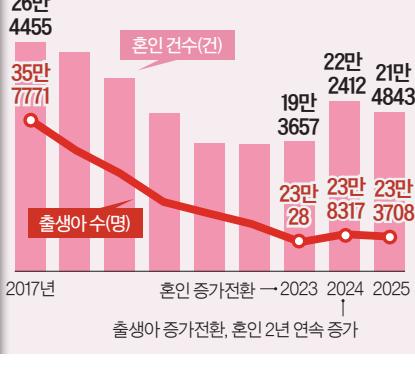
김모(33)씨, 공무원
2021년 결혼
2023년 첫째 출산
2025년 둘째 출산
경기 수원시

“남편과 수입 합치고
신혼부부 특례 대출로
집 사며
경제적 안정”

황모(33)씨, 공공기관
2023년 결혼
2026년 출산 예정
서울 성북구

“사기업에서 공공
기관으로 이직하며
정시 출퇴근”
“고독사 두려움”

출생아수 반등, 결혼은 2년 연속 증가세



가 삶을 정도로 다들 결혼이나 출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미혼 남녀 결혼 및 출산 의향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약 2~3%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구조적 반등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철희 서울 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지연됐던 결혼과 출산이 재개되고, 30대 여성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일자리·주거·교육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반등이 장기 흐름으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출산을 적극 고려하는 분위기다. 오는 11월 결혼식을 앞둔 이한조(34)씨는 “예전에 ‘홀로’나 ‘골드미스’ 같은 표현이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정을 꾸리는 게 일종의 유행이 된 건 아닌가”고 말했다.

로삼권·이아미·김예정 기자

갈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주인 간접판매			주소	기간	세입자
	주소	가격	상태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COMING SOON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많이 달라고 연락.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많이 달라고 연락.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10월~내년 1월 임주 예정	\$2,000~\$3,500 거주대 렌트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치고 1타운 홈.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12/22 세일먼트 예정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치고 1타운 홈.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12/22 세일먼트 예정	바로 입주 가능	\$5,500 친 체 일그레이드 된 치고 1타운 홈, 방 3, 흐 3+1, 거번 없음, 풍물로우 중/백클린 고등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꼼.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일먼트 원료	셀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꼼.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일먼트 원료	바로 입주 가능	\$4,000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 받아 경쟁시켜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일먼트 원료	복수 오피 받아 경쟁시켜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일먼트 원료	바로 입주 가능	\$2,700 박 2, 흐 2, 지정 차고, Springfield ES, Longfellow MS, McLean HS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집 사자마자 주재원 정기 렌트 원료 10/21 세일먼트 원료	집 사자마자 주재원 정기 렌트 원료 10/21 세일먼트 원료	12/20 입주 가능	\$3,200 친 전체 Renovation 될 치고 1타운 홈, 퀄린 파일 초등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이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상글홈	Woodbridge 이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상글홈	12월 입주 가능	\$4,800 풍물로우에서 유입하여 수영장 있는 차고 1, 터운 홈, 방 4, 흐 3+1, 풍물로우 중/백클린 고등
8220 Greensboro Dr, McLean, VA	Delisip(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정기 청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을 막으면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퍼미트 지원할 정도로 인정된 수입	DC 내 위치 좋은 정기 청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을 막으면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퍼미트 지원할 정도로 인정된 수입	1/1 입주 가능	\$3,300 친 전체 Renovation 될 치고 1 상글 홈, 교통편리, 방 4, 흐 2, Nice Owner
					현재는 12/20 두께는 1/1 입주 가능	\$4,600 풍물로우에서 유입하여 수영장 있는 차고 1, 터운 홈, 방 4, 흐 3+1, 풍물로우 중/백클린 고등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28
(타이슨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갈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센터빌
○챈들리
○현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보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루기

‘달이다’와 ‘다리다’

독감의 유행으로 인해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요즘엔 독감에 걸리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지만, 옛날엔 배나 파뿌리를 고아 감기약으로 쓰곤 했다. “엄마가 다려 주던 배즙이 생각난다” 등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이가 있는지 모른다.

위 예문처럼 배나 파뿌리를 ‘다려서’는 약으로 지을 수 없다. ‘다려(서)’와 ‘다린’은 ‘다리다’를 활용한 형태다. 그러나 ‘액체를 끓여 진하게 만들거나 약재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는 뜻을 지닌 단어는 ‘다리다’가 아닌 ‘달이다’이다. 따라서 ‘다려(서)’ ‘다린’은 ‘달이다’를 활용한 ‘달여(서)’ ‘달인’으로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다리다’는 옷이나 천의 주름을 펴거나 줄을 세우기 위해 다리미로 문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와이셔츠를 다려 입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 “어제 다린 블라우스가 그새 구겨졌다” 등처럼 쓸 수 있다.

‘달이다’를 [다리대로] 발음하다 보니 표기 역시 소리 나는 대로 ‘다리다’라고 쓰기 쉽다. 그러나 ‘달이다’와 ‘다리다’는 각각의 의미를 지닌 독립된 단어이므로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달이다’와 ‘다리다’가 헷갈린다면 ‘다리미’를 떠올리면 된다. 정리하자면 약은 ‘달’이고, 옷은 ‘다려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1. 센터빌 타운	\$650,000
Under Contract	방3, 화2.5, 치고1, RT 28, 66 교통편리, 전부 업그레이드
2. 애쉬번 타운	\$660,000
SOLD	방4, 화3.5, 치고2, 최고 학군, RT 267/7, 텔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4. 스톤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렉서리 싱글	

7. 애쉬번 뉴타운 55+	\$790,000
Pending	방3, 화3.5, 치고2, Elevator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문우 스위트, 미더룸,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869,000
Under Contract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2 2. 매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치고2

기자의 눈

한미 양국 보수정당의 딜레마



김경준
사회부 기자

보수정당이 요즘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은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통치의 방식’이다. 극우적 방향성이 선명해지면서 정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인 타협과 절차, 책임감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하나의 딜레마로 귀결된다. 강경 지지층을 불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도층은 멀어지고 통치 역량은 약해진다. 그렇다고 강경 지지층과 거리를 두는 순간, 조직이 흔들린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보수정당은 이런 딜레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방의회 세출법안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은 결속보다 분열을 방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은 뒤 부분적 셧다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도부는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달 31일 부분적 셧다운이 시작됐다. 하원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며 반대에 나서 상황은 더 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해 세출법안에 건강보험 관련 개혁안을 덧붙이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틴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민주당과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긴다. 공화당은 왜 스스로 통치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리적 타협을 회피하는가.

정답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정당을 움직이는 동력이 중도층이 아니라 극단적 지지층의 결속력

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극우 성향 지지층은 투표장에 더 충성스럽게 나오고, 온라인에서 더 크게 싸우며, 후원금과 정당 재정에도 더 많이 기여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 스텐스는 이 지지층과 정당의 연결고리를 ‘정체성’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

공화당이 강경 노선을 완화하는 순간, 이는 정책 조정이 아니라 ‘배신’으로 프레이밍될 가능성 이 높다. 이로 인해 로널드 레이건부터 조지 W. 부시 시대까지 공화당의 중심이었던 신보수주의자들, 이른바 네오콘은 사실상 비주류로 밀려났고, 한때 공화당의 얼굴이던 ‘합리적 보수’는 오히려 악점이 됐다.

그럼에도 합리성 회복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경 지지층 결집은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중도층 이탈이 본격화되는 순간 정당의 확장성은 급격히 약화된다. 실제 최근 여론 흐름에서도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기우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의 승패는 결국 막바지에 판단을 내리는 중도층이 좌우하는 만큼, 이 흐름이 굳어질 경우 보수정당은 장기적으로 세력 기반을 잠식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분열이 격화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 지지자도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당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 취임 3개월 만에 매월 1000원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20만 명 이상 늘었고, 지난달 기준 당원 수는 100만 명을 넘겼다. 한국 보수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동시에 위축의 길을 걷고 있다. 계엄 사태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명확히 하지 못했다. 이 모호함은 진정성 논란으로 되돌아오고, 당내 소장파는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늘어난 책임당원이 정당의 외연을 넓힌 것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이 당을 더 좁은 방향으로 끌어버린 것인지다. 만약 후자라면 현 지도부가 합리성으로 선회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미국이든 한국이든 보수정당의 현실은 같다. 강경 지지층만 품으면 당장은 버티겠지만, 중도층과는 멀어지고 통치 능력도 약해진다. 반대로 합리성을 회복하려면 극단과는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하지만, 그 순간 당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 생존을 원한다면 답은 하나다. 보수정당은 극우화의 유혹을 끊고 상식과 정책, 협상이 작동하는 합리적 정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아침에

삶에도 ‘조율’이 필요하다



김재동
수필가

연주가는 반드시 연주 전에 악기를 조율한다. 너무 조여 있는지, 혹은 느슨한지 점검한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사람끼리의 ‘관계성’이 바로 음악의 연주에 해당한다. 원활한 관계성은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다.

인간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무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집착이다. 무관심은 악기의 느슨함에 해당한다. 줄이 느슨하면 음률에 탄력이 없어지듯, 무관심은 삶을 맥 빠지게 한다. 반면, 지나친 집착은 악기의 줄이 너무 조여 있어 자유로운 순발력이 어려워질 때처럼, 삶을 긴장시키는 숨 막힘으로 이어진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해치는, 고장 난 현악기의 줄과 같다. 이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가끔 삶을 되돌아보며 삶을 조율하고 다른 이와의 관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준다. 어느 날 IT로 성공한 돈 많은 젊은이가 값비싼 차를 몰고 쇼핑을 가다 빨간 신호등 앞

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흄리스처럼 보이는 어린아이가 다가와 벽돌로 고급 차의 앞 유리창을 치살았다. 순간 화가 난 젊은 사업가는 차에서 내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부모가 누구냐며 호되게 다그쳤다. 그때 그 아이의 입에서 기상천외의 말이 튀어나왔다. “아저씨! 죽을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훨체어에서 떨어져 1시간 넘게 방치된 불쌍한 장애인 형을 살려낼 수 없어요.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쳐도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불쌍한 제 장애인 형

을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는 것이었다.

순간, 젊은 사업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생전 처음 겪는 엄청난 비애와 분노 같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는 즉시 자기 차의 뒷좌석에 두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다. 이런 일을 겪고 난 후부터 젊은 사업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실제 이야기였다.

일찍이 누군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사람들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서일까? 사람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또한 인간의 삶이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성이 형성된다.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창이 되고, 직장 동료가 되고, 믿음의 교우가 된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성이 시냇물에 씻겨 다듬어진 조약돌처럼 온갖 희로애락의 세파에 씻겨 무관심과 집착마저도 원만하게 조율된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오늘도 네가 있어, 내 마음이 꽂 밭이다’라고 노래한 것 아닐까?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년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설탕세는 세금 아닌 부담금… 100% 보건 증진에 쓸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띠우면서 ‘설탕세’ 논란이 불붙었다. 설탕부담금은 2021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조세 저항과 물가 상승 우려를 내세운 식품업계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국민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57.2g으로 세계 보건기구(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설탕부담금 논의의 산파역인 윤영호(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를 만났다. 그는 2018년부터 설탕 부담금 도입을 주장해왔고 지난해 9월 민주당 기재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일에도 설탕부담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대로면 24년 뒤 건보 44조원 적자”

“설탕세”라니 국민 가운데는 “또 세금 때리나”는 저항도 나옵니다.

“세금(Tax)이 아니라 부담금(Levy)입니다. 용차가 국민 건강에만 쓰인다는 점, 당분의 위험을 경고·예방하는 과태료란 점에서 세금과 다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대표 국가인 영국도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해요. 영국은 100ml당 첨가당이 5mL 이상 들어간 식품에 18펜스(약 350원)를, 100ml당 8mL 이상 첨가당 함유 식품은 24펜스(약 470원)의 부담금을 매깁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그럼요. 영국은 첨가당 음료 매출이 33%, 식품에 든 첨가당 함유량이 46% 줄었죠. 포르투갈·뉴질랜드·멕시코도 비슷한 성과를 냈으며 미국 역시 5개 주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33% 인상한 결과 구매가 33% 줄었어요. 부담금 탄력성이 거의 100% 효과가 큰 거죠. 더 의미 있는 건 저소득국가나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 소비량을 줄인다는 거죠.”

“설탕의 폐해가 그리 심각한가요?”

“우리 청소년 3명 중 1명이 당분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성인까지 합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과다 섭취고요. 유전적인 취약성이 큰 청소년기에 단것 먹기가 습관 되면 끊기 어려워요. 이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 노인이 됐을 때 의료비용이 급증할 테니 조기에 바로 잡아야죠. 요즘 청소년들은 아침에 채소·과일을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때우니 단것과 기름진 음식 노출도가 굉장히 큽니다. 비만→당뇨·심혈관 질환→암 발생 악순환에 우려돼요. 노인도 심각합니다.”

“노인도요?”

“2024년 말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 의료 비용이 급증해 2050년엔 한 해 건강보험 적자가 44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과거엔 노인은 단것 안 먹는다는 통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달지 않으면 맛없다고 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노인의 당분 섭취 증대로 의료비용도 폭등해 24년 뒤엔 건강보험의 44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담금을 매길 구체적인 식품은 뭘까요?”

“국민에게 질문하니 청량음료와 빵·과자·빙과 순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라면 같은 면류의 순위가 가장 낮아요. 필수식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고추장·쌈장 같은 장류나 조림식품도 첨가당이 상당합니다. 이들도 포함해서 영국식으로 100ml당 첨가당 5ml 초과 함유 식품엔 가격의 20%를 부담금으로 매겨야 한다고 봅니다. 1년에 최소 1조 8000억원의 분담금이 걸릴 것으로 대강 산정되는데 그 100%를 보건 증진에 쓰는 거죠.”

“왜 ‘100ml당 5ml’라는 지표가 나온 걸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일반인은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0%,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은 5% 이하만 첨가당으로 섭취라고 권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산정한 듯하고요. (제로 콜라 같은 무설탕 음료는?)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은 식품인데, 감미료도 성인병 증가 요인이라 설탕부담금 부과 120개 국가 중 75%가 부담금을 부과해 풍설탕효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국민도 74%가 찬성해요.”

“그래도 국민 입장에선 ‘1000원짜리 콜라값이 1200원이 된다면 세금 아니냐’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부터 하자는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업계가 공론을 거쳐 10년의 로드맵을 세워 타협하는 거죠. 첨가당 많이 들어간 식품에 부과된 부담금을 채소나 저당 식품 지원에 써 가격을 낮춰주고 저소득층이 채소나 저당 식품을 사면 현금 포인트를 주며, 저당 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 부담금을 쓰자는 겁니다. 또 전국에 국립대 병원이 10곳인데 소아과 오프린, 응급실 뻥튀기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을 서울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도 부담금을 쓰는 겁니다.”

“국민이 똑같이 부담금을 내는데,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아닌가요?”

대통령이 띄운 뒤 세금 논란 번져
첨가당 과다 경고 과태료일 뿐
걷힌 재원,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
공론화 서둘러 오해 해소해야



“재원이 충분하다면 고소득층에게 도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되니 첨가당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청소년부터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자는 겁니다.”

“설탕부담금으로 설탕값이 급등하면 식당 음식값 등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또 식당 음식이나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는데 부담금 대상 아닌가요?”

“설탕 자체는 부담금 안 매겨요. 건강에 해로운 첨가당을 과도하게 식품에 넣는 경우만 매기니 설탕값이나 연관 물가는 오를 이유가 없어요. 식당 음식이나 동네 제과점 빵에도 부담금 안 매깁니다. 자율적으로 당분을 줄이게 유도하는 게 우선이죠. 또 과일에 든 당분은 자연당으로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기에 유해도가 낮아 부담금 대상 아닙니다.”

“국민은 ‘돈을 더 내라’는 네거티브보다 건강식품에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당분을 규제하면 된다고 보지 않을까요?”

“당분을 줄인 식품에 세제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해봤자 기업 입장에선 첨가당 많은 식품 팔아 버는 돈이 훨씬 많다고 판단할 터라 효과가 미미할 겁

겠습니다. (업계의 반발은 없나요?) 넉 달 전 토론회에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던 한국 식품협회 측이 이번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진보도, 보수도 설탕부담금 찬성”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설탕부담금이 정치적 이슈가 될 우려도 있지 않나요?”

“철저히 보건 관점에서 탈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입니다. 자체 조사를 해보니 우리 국민은 정파를 초월해 설탕 분담금에 찬성하고 있어요.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한 응답자의 찬성률이 85.1%인데 보수란 응답자도 77.1%, 중도란 응답자도 78.6%로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설탕 부담금 아이디어를 얻게 됐나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 결정 요인은 유전이 5%, 의료가 10%, 습관이 30%고, 사회 환경이 55%에 달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환경이 나쁘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죠. 내 환자 가운데 암에 걸린 40대 남성이 있는데 당뇨도 있어 설탕 섭취를 줄어야하는데 이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무직자라 형편이 어려우니 라면 같은 값싼 가공식품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약을 처방해줄 수밖에 없으니 환자 개인의 의료비용은 물론 건보 재정도 악화되죠. 결국 달고 기름진 식품이 만연한 환경부터 바꿔야 문제를 해결된다는 판단에서 8년 전부터 설탕 부담금을 거론하기 시작했죠.”

“개인적인 배경도 있을 법한데요.”

“전남 나주 출신인데 초등학교 3년 때 광주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하며 저를 돌봐준 누님이 위암에 걸려 24세에 숨졌어요. 이를 뒤집어쓰고 올면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84년 서울대 의대에 진학한 뒤 40대 암 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호스피스 간호와 ‘웰다잉’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에 근무할 때 담배를 끊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고 박재갑 원장님과 함께 담배 부담금(일명 ‘담뱃세’)을 추진하면서 ‘사회 속의 의료’ ‘건강 공동체’ 같은 개념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때 담배부담금 목표를 매년 1000원씩 올려 1000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열을 올렸는데 결과는 500원 인상에 그쳤어요. 그래도 담배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더군요. 그때 얻은 체험이 설탕 부담금 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교통사고 / 최대보상

개인상해 보상청구

Chapter 7: 개인 파산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Regina Domingo | Chris Shin | Robert Harris
Esq. Esq.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시설

‘재판 3법’ 속전속결 나선 여당, 사회적 합의 충분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3대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도입), 형법 개정안(법외곡죄 도입)이며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중요도에 비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당 법안대로면 늘어나는 대법관 전부가 이제 명정부 입기 내에 임명돼 ‘자기 사람 채우기’로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있다. 또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보는 사실상의 ‘4심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 법외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외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만큼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민주당이 사법개혁 명분으로 내세우는 문제점 중 상당수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파에 따라 법원 판결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상소제도의 틀 안에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정권이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면 삼권분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속도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당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시한으로 정해놓고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올해 10월 시행되지만, 수사기관 간의 혼선 등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말한다면 설 명절 전에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기보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어제(3일)도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경고를 SNS에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선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을 향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다. 윤희숙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다주택자에게도 다양한 사정이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런 집을 팔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만 힘들어진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이면서 분양시장의 수요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주택 공급이 타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마귀사냥을 선언한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윤희숙 전 의원의 비판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어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서울 등 조정 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하면 예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정책 차방이 유연해진 건 다행스럽다.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가 매물 잡김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만 힘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한데 정부의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은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위한 법안 23건 중에 국회를 통과한 건 4건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짓는 1·2·9 공급 대책도 용산·태릉·과천의 공급 물량 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견으로 제대로 추진될지 불안하다.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해 공급 대책이 실제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의 거친 SNS 전면전보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심해 희토류까지 캐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대비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탈(脫)중국화를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120억 달러를 투입해 석유처럼 핵심 광물을 전략비축하는 ‘프로젝트 블루’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미·중·통상 전쟁에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카드로 미국이 타협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카이치 사나이에 종리의 ‘내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절박하다. 요미우리 신문은 5700m 심해에서 희토류가 고농도로 함유된 진흙

을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희토류 국산화를 위한 커다란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주요국은 중국미와 아프리카 오자는 물론 심해 해저, 심지어 달까지 뒤지면서 희토류 자급을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 역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공급망 안정화 양해각서(MOU) 체결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만, 중국발 사드 보복이나 ‘요소수 대란’의 충격파를 잊어선 안 된다.

무능한 야당이 정권 바꾸는 순간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무능한 야당은 정권을 못 바꾼다.”

한동훈과 장동혁, 전·현 당대표가 자기들끼리 극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비롯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야당을 야단칠 때마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꺼내드는 단골 레퍼토리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무능한 야당도 얼마든지 정권을 바꾼다. 실은 지난 두 번의 정권 교체가 그랬다. 정부 견제나 정책 대안 등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기는 커녕 야당이 아무리 무능해도 권력이 오만하면 정권을 내줬다. 지리멸렬한 야당을 비웃으며 영원히 집권할 것처럼 폭주하다가 자멸했다는 얘기다. “100년 집권” 운운이 무색하게 10년도 아니고 고작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복기해 보자. 불과 14년 전인 2012년엔 민주당이 딱 지금의 국민의힘 같았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정권을 내주고 나눠먹을 게 별로 없으니 허구한 날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웠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 수준이라 다들 “질 수 없는 선거”라던 그해 4·11 총선 결과를 끼어보니 여대야(국민의힘 전신 새누리 152석, 민주 127석)의 야당 참패였다. 망하는 정당이 늘 그렇듯, 이때도 공천이 문제였다. 친노 위주의 공천이 옛민주당 계열 호남의 반발을 불러와 지지기반 이탈 요인(탈당 후 창당)이 컸다. 반성은 없었다. “근소한 차로 진 사람이 많다”느니, “수도권에선 이겼다”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식의 정신 승리에 급급했다. 정권과 싸우는 대신 내홍에 빠져 자기들끼리 치고받느라 당연히 정권은 되찾지도 못했다. 딱 요즘 국민의힘 같았다. 한마디로 무능했다.

세월호 사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속 여당의 자중지란 덕분에 무능한 야당 민주당이 거제 좁다시피 정권을 잡았다. 이제 무능한 야당 자리는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뭉이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21대 총선(2020)에서 역대 최

대 180석을 차지한 후에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반성이나 외연 확장을 위한 개혁은커녕 자기 당에서 대선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당권에만 연연하다 상대편 검찰총장을 수혈해 와 대선 무대에 세웠다.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무능한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을 이겼다.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 요인을 딱 하나만 꼽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탄핵 비상시국에 대안세력 부재라는 반사이익 덕에 얻은 정권이라 통합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는데도 적폐 청산에만 매달렸다. 입시 비리가 야기한 조국 사태(2019)는 내로남불 부메랑으로 돌아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의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불을 붙인 건 부동산 정책이었다.

취임 100일 째 문 대통령은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며 자신만만 했다. 하지만 임기 중 무려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금 등 모든 규제 수단을 총동원한 수요억제책을 내놓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 메시지
국민과 싸우는 듯 과한 자신감
지리멸렬 야당 숨통만 트운다

으며 다주택자 잡기에 혈안이 될수록 집값은 더 뛰었다. 임기 말 그가 부동산과 관련해 남긴 말은 “할 말이 없다”였다. 그렇게 정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장황하게 옛이야기를 꺼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자신감이 불안해 보여서다. 그는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뒤 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글을 10건 넘게 올렸다. 어제(3일)도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겼느냐”는 험한 말까지 써가며 “반드시 잡는다”고 했다.

턱없이 치솟는 집값 잡기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만 다주택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몰거나 모순되는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식적 반응까지 싸잡아 악마화해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데 찬성할 국민도 없을 거다. 이런 시도는 다 죽어가는 무능한 야당 숨통만 트워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알고도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전체 계약체결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화사통신社,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운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 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작판지(C) 중앙일보·부동 전자 및 제작포장지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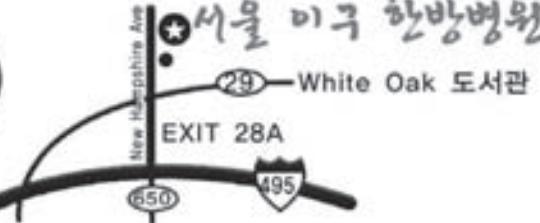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한식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팔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Old Lee Hwy.
T.J. Maxx
Main St. Center
Fairfax Motors
한국자동차
Burke Station Rd.

Main St.
Main St.
Woodson H.S.
Pikekett Rd.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wpk, #303, Annandale, VA 22003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February 4 2026 C

○ 냉·난방 ○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온도되고 깨끗한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95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매출한 풍靡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당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행복하고 싶다면... '감사할 일' 목록 적어보세요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올해의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해를 맞이했다고 지친 마음이 갑자기 회복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간이 기다려지기보다는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내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 경험과 생각들보다 우울 불안 두려움 후회 버거움의 감정과 생각들이 마음속에 밀려와서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 마음이 다시 '지금 여기서 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도울 수 있을까.

타인에게 친절 베풀며 삶의 가치 재확인 첫 번째로,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정을 계획하고 수행해 본다. 이는 활동 디자인하기, 활동 실천하기, 활동의 좋았던 부분 회상하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활동 디자인하기 단계에서는 그 자체로 즐겁고 성취감을 주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일/직업, 친밀한 관계, 양육, 교육/학습/개인적 성장, 친구/사회생활, 건강/신체적 자기관리, 혈연가족, 영성, 지역사회 생활/환경/자연, 오락/여가)에 부합하는 활동의 일정을 계획한다.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중에 그 경험의 좋은 부분을 음미해 보고 활동 수행 전~수행 중~수행 후 기쁨/성취감/평안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여 활동의 수행과 긍정적인 감정의 강화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을 마친 다음에는 활동을 수행했던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인 요소들과 긍정적인 감각경험들(소리·냄새·시각자극 등) 및 이를 접할 때 마음에 떠오른 생각과 감정들에 주목하여 1인칭 시점에

새해 긍정 에너지 충전법

'성취감·기쁨' 맞춰 하루 일정 구상
좋았던 기억은 복습하듯 되새겨야
당시 소리·냄새 등 떠올리면 도움

서 그 순간을 현재에 다시 경험하듯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시각화하여 떠올려 본다. 이와 같이 행복한 경험의 구체적인 심상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한 경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 감정을 되살리고 강화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경험해 본다.

두 번째로, 부정적-위협적인 결과의 가능성과 자신의 대처역량 부족에 대한 생각의 편향으로부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상황의 긍정적인 부분에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부각하는 작업을 수행해 본다.

먼저 최근에 경험한 일 중 좋았던 상황, 별다른 느낌이 없었던 상황,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각각 떠올려 본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상황이 발생한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 요소들과 감각경험들, 마음에 떠오른 생각과 감정들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경험과 연결될 수 있거나 효율적인 상황대처에 활용할 수 있는 6 가지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낸다.

또한 각각의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찾아낸다. 이를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의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의 심상을 구체적으로 마음 속에 떠올려 보고,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감각경험과 효율적 상황대처에 기여하는 모습을 심상의 장면 속에 구체적으로 묘사해 본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에 편향된



- 01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활동을 설계하고 실천한 뒤 긍정적인 경험을 돌아본다.
- 02 각 경험의 시간·공간·감각을 되새기며 긍정적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
- 03 자신과 타인을 향한 긍정적 기원과 친절·감사 실천을 통해 감정 변화를 짐작한다.
- 04 부정적 생각이 들면 감각과 행동에 집중해 현재의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감정반응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반응을 적극적으로 배양해 본다. 먼저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향해, 오늘 나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를,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아지기를, 나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의 일상에서 고통과 과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충만히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해 준다. 이어서 나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순간 지구상에 함께 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건강과 평화와 자유로움이 충만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된다. 이러한 기원을 마음속으로 전하기 전과 후, 나의 기분 상태를 스스로 비교하고 긍정적인 감정경험의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해 본다. 오늘 하루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감사 표현이나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수행한다.

부정적 생각들면 손·발이 하는 활동 집중
네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이 관성적으로 마음속에 반복하여 맴도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 실시간의 활동으로 다시 나의 마음을 인도해야 한다.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순간에도, "이런 좋은 순간은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거야" 또는 "나는 이런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을 관성적으로 떠올리는 순간 긍정적인 정서반응은 찾아들고 다시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만약 희망을 발견했다고 느낀 순간 뒤이어 다시 실망하게 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면 뒤이어 올지도 모르는 좌절과 실망의 고통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도 이를 스스로 억제하고자 애쓸 수도 있다.

윤제연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교수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wpk, #310-B
Annandale, 22003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락빌의 건강지킴이

황지연 내과

Jiyon Hwang-Ki MD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황지연 내과와 함께 관리하세요."

진료 과목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협심증, 해소, 천식,
위궤양, 간염, 알러지검사, 신경통,
관절통 및 신경질환, 갑상선,
종합검진, 각종 예방 주사, 부인과 진료,
수액 주사, 링거 주사

** 메디케어 및 HMO, 각종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 Amerigroup 받습니다.

Dr. 황지연

Jiki Medical Associates, LLC
Internal Medicine

301-610-6630

www.drhwangki.com

• 연회제 주치의 프로그램 •

1단계 기본 (Essential)

- 연회비: \$1,800 (월 \$150)
- 포함: 연 2회 종합검진 (CBC, CMP, TSH, Lipid, HbA1c, UA, EKG), 원격진료 4회, 약물 검토·처방 개선, 전문의·병원 연계
- 정기 관리 기본: 6개월마다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4회 예약창 제공

2단계 프리미엄 (Premium)

- 연회비: \$3,000 (월 \$250)
- 포함: 연 4회 종합검진 (동일 항목), 원격진료 8회, 독감백신 1회, 약물 검토·처방 개선, 분기별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8회, 독감백신 시즌 내 접종, 전문의·병원 연계

등록비: \$250 (1회)

Telehealth 추가비: 포함 화수 초과 시 \$50/회
(사전 고지 후 \$50/회 결제)

연장/갱신: 만료 45일 전 갱신 알림, 30일 전 취소 가능



15200 Shady Grove Rd, Ste 108, Rockville, MD 20850
Fax. 301-610-5431 | Email. jikimedical@gmail.com

‘방금 뭐 하려 했지?’ 자꾸만 깜빡한다면 두뇌 영양 성분 챙길 때

뇌 기능 지키는 포스파티딜세린

방금 뭐 하려 했지? 가물가물하고 막 끊은 전화 내용도 흐릿하다. 분명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집 안을 한바탕 뒤집는 일도 부지기수다. 대다수의 중장년층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 작은 기억의 틈이 일상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균열이 될 수 있다.

변화는 일상 가까운 곳부터 시작된다. 사소한 약속을 잊거나 대화의 맥락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소통에 혼선이 빚어진다. 가스불이나 문단속 같은 안전 관리에서도 허점이 생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 노년기를 보낼 수 밖에 없다.

꾸준한 운동, 뇌 염증 억제에 좋아
기억력과 인지력 저하를 방지하고 뇌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절주와 금연은 기본이다. 여기에 읽고 쓰는 활동을 습관화하면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꾸준히 운동한다. 운동이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혈류 개선, 뇌 염증 억제 등에 긍정



노화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저하될 때 뇌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뇌 신경세포 막 이루는 핵심 성분

노화로 급격히 감소, 외부 보충 필요
식물 유래 성분이어서 안정성 우수

적인 역할을 해서다.

뇌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인지력 감소를 개선해 주는 대표적인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이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 신경세포 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다. 신경세포 막 내층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세포 간

신호 전달과 세포의 생존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정상적인 뇌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 뇌 신경세포 막 속 포스파티딜세린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신경세포 막의 물리적 특성이 변하고 세포 간 신호 전달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기억력 감퇴와 인지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포스파티딜세린은 체내 합성량이 충분치 않아 감소 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

대부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줄어드는 체내 포스파티딜세린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두뇌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의 시험을 통해 인지 개선 효과를 입증받기도 했다.

4~12주 후부터 섭취 효과 나타나

실제 평균 60.5세인 치매 환자들에게 매일 3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투여했더니 ▶기억력은 13.9년 ▶학습 능력은 11.6년 ▶전날 본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은 7.4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다. 65~78세 대상 시험에서는 얼굴과 이름을 연계해 인식하는 능력이 개선됐고, 50~90세 대상 시험에서는 집중력과 정신적 유연성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두뇌 건강 개선 효과는 보통 섭취 4~12주에 나타났으며 식물 유래 성분이라 장기 복용 시 안정성도 우수했다.

포스파티딜세린 외에 은행잎 추출물 역시 기억력 개선과 뇌 기능 장애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기능성 원료다. 은행잎 추출물의 핵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징코라이드·빌로발리드는 각기 다른 기전으로 뇌를 보호한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통해 미세혈관을 보호한다. 징코라이드는 혈소판 활성화자를 억제, 혈전 형성을 막고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며 빌로발리드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안정시켜 신경세포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방어한다. 이러한 복합 작용을 통해 은행잎 추출물은 뇌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시냅스 생성을 촉진해 신경의 신호 전달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뇌 미세혈관을 확장해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돋는다. 하자수 기자

강남유로비뇨의학과 전립선비대증

조직 절개 안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 … 일상 회복 빠른 ‘유로리프트’ 주목

특수 고정 장치로 요도 넓히는 시술 성기능 부작용 발생 위험도 낮아

전립선비대증은 중장년 남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조직이 커지고 요도가 압박을 받으면 소변의 흐름이 악화된다. 이때 잔뇨감이나 약간뇨, 빈뇨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간 이어질 경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약 130만 명에서 2024년 약 158만 명으로 늘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초기엔 배뇨를 돋는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해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요즘엔 약물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유로리프트(UroLift)’ 시술이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로리프트는 전립

선을 절제하거나 태우지 않고, 특수 고정 장치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옆으로 당겨 요도를 넓혀주는 최소침습 시술이다. 기존의 수술법과 달리 조직 손상이 거의 없어 출혈 위험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절개 없는 시술로 고령 환자 부담 적어
유로리프트 시술은 보통 국소마취 또는 척추 마취 상태에서 진행되며, 시술 시간은 20~30분 내외로 짧다. 대부분의 환자는 비절개 시술로 회복 기간이 비교적 짧아 직장인이나 고령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다. 기존의 치료는 발기력 저하나 사정 장애와 같은 성기능 부작용을 동반할 우려도 컸다. 그러나 유로리프트는 신경과 전립선 조직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정·발기 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성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교적



강남유로비뇨의학과 이무연 원장이 전립선비대증의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은주 객원기자

질환을 앓고 있어 전신 마취와 침습적 인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들에게 유로리프트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환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시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 줄기가 굽어지고 시원해지며 약간뇨와 잔뇨감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반응이 많다.

물론 유로리프트가 모든 전립선비대

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 강남유로비뇨의학과 이무연 원장은 “전립선비대증 치료는 약물, 수술, 시술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환자의 연령과 증상, 생활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치료가 핵심”이라며 “유로리프트는 빠른 회복과 성기능 보존이라는 장점 덕분에 항후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더해 환자별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우려면 시술하는 의사의 이해와 경험도 중요하다. 최소침습 시술은 조직을 절개하지 않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전립선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시술 숙련도가 뒷받침돼야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증상을 무작정 참고 넘기기보다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영 기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복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박사
- 임상 26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계단 2층 오르고 '헉헉' ... 숨이 차고 기침 오래가면 COPD 의심

〈만성 폐쇄성 폐 질환〉

COPD의 한의학적 치료

자각 없는 '침묵의 병' 겨울철 기승
개인 맞춤형 복합 한방 치료 효과적
만성 증상 완화하고 심폐 기능 강화

겨울철엔 찬 바람이 불고 날씨가 건조해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린다. 특히 이번 겨울은 감기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기침이나 극심한 인후통을 장기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 이를 감기·독감의 후유증으로 생각하거나 단순한 노화, 체력 저하 현상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폐 질환이 진행해 나타난 증상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폐 질환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만성질환일 땐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돼 '침묵의 병'으로 불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이다. COPD는 폐와 기관지에 만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 기도가 좁아지고 폐가 막기지는 질환이다. 이땐 폐포(허파꽈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COP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0년 17만8574명에서 2024년 19만52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흡연·미세먼지가 만성 염증 주원인
COPD를 유발하는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다. 담배 연기는 기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과 협착을 유발한다. 각종 유해 물질이 농축된 미세먼지나 알레르기도 기관지와 폐의 만성 염증을 유발해 질병을 악화시킨다. 문제는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점이

Tip

폐에 좋은 음식 4가지



베리류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 제거, 세포 손상 억제
녹황색 채소	항산화 비타민, 폴리페놀이 폐 조직 회복에 도움
견과류	비타민E가 많아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밸류
도라지	가비 배출과 기관지 수축 완화에 도움

다. 초기엔 가벼운 숨가쁨이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 컨디션 난조로 많이 오해한다. 폐 기능이 50% 이상 손실될 때까지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감기·독감이 낫지 않아 겸사해 봤더니 COPD로 진단받는 사례가 나온다.

3개월 이상 기침을 지속하는 환자 가운데 최대 20%는 만성 폐 질환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COPD의 질환 인지율은 2.3% 수준으로 유병률이 비슷한 고혈압(71.2%)·당뇨병(66.6%) 대비 현저히 낮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흉부가 답답하거나 쌩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가래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계단 2층 만 올라도 숨이 많이 차거나 ▶밤에 누우면 숨이 더 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침부터 나오며 ▶기침이 수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폐의 이상 신호로 봐

야 한다. 특히 40세 이상의 흡연자나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폐 기능을 검사하는 게 좋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COPD는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개선하고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은 "정상적인 폐는 선분홍색으로 부드럽고 충분한 산소와 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영양물질이 풍부하지만, COPD 환자의 폐는 어두운 갈색이며 거칠고 딱딱하다"면서 "병든 폐포의 재생과 폐의 활성화를 돋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에선 COPD를 치료할 때 폐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로 폐 기능의 회복을 돋는다. 특히 폐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기도의 염

증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방 복합 치방을 연구 중이다. 특히 영동한의원은 증상을 개선하는 동시에 손상된 심폐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끌어 올리는 데 중점을 둔다. 폐와 심장은 형제 같은 장기다. 폐에서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산소량이 부족해 협심증·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처방책은 'K-심폐단'이다. 이는 마황·계자·금은화·신이화 등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줄이고, 녹용·녹각교를 더해 폐포의 재생을 돋는 복합 한방 치료다. 특히 인동덩굴의 꽃봉오리를 말린 금은화는 염증 제거에 효과적인 이리도이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의 면역력 증강을 돋는다.

기침 유형·체질에 맞춘 'K-심폐단'

백두면 꽃망울을 말린 신이화는 호흡기 염증을 가라앉혀 코에서 폐로 이어지는 숨길을 열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녹용·녹각교에는 판토크린 성분이 있어 폐를 만드는 조혈 작용을 도와 폐포를 재생시키는데 좋다. 이런 복합 한방 치료는 코부터 기관지, 폐포까지 호흡기 전체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COPD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기침의 유형과 환자의 체질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약을 가감해 제조하는 맞춤 치방을 시행한다. 이로써 단순한 증상 완화 수준을 넘어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인 치료에 주력할 수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숨杼 증상과 기침, 가래는 만성 폐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김선영 기자



김동하 객원기자

건강칼럼



한일한의원원장
연태홍

환자가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등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 '등이 아파요'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등이 아프다고 하면 일단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등은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랫부분은 허리위주로 척추나 허리근육 혹은 신장질환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간부분의 등근육질환이 제일 많으나 폐의

이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윗부분의 등 통증과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척추나 근육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 등쪽이 아프다면 척추외에 담낭염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전 등쪽으로 물리치료만 한참 빙다가 좋아지지 않자 내원했는데 소화불량과 오른쪽 상부에 통증도 같아 수반되어 검사해본 결과 담낭염으로 진단이 되어 더 큰 합병증을 방지

할 수 있었다. 또한 왼쪽 등쪽이 갑자기 아프다면 이 역시 근육통이 아니고 심장질환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때 당연히 왼쪽 가슴쪽에 통증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숨이 가쁜 증상이 있다면 심전도로 심장을 검사해 봐야 할 것이다. 심근경색 등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위장에 문제가 있어도 등쪽에 조이는 느낌의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같이 장기의 문제로 인해 발생

하는 다른 쪽의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한다. 이 때 주 통증부위 이외에 다른 부분의 문제는 없는지 잘 알아야 오진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것은 물론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환자 자신도 본인의 몸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잘 알고 의사에게 이상유무를 꼭 알려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통증을 장기 이상으로 보고 건강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의 703-642-6066

등이 아파요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쟁겨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추울 때 힘 쓰면 심장·관절 부담…최소 10분 예열운동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건강을 목표로 삼는다.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시작해보자 마음을 다잡아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된다.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야외 활동은 줄고, 따뜻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추운 날에는 자연스레 단 음식, 기름진 음식들을 즐겨 찾게 된다. 겨울은 그러나 운동을 쉬어야 하는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 시기다. 신체활동이 줄어들면 체중 증가와 근육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는 혈압·혈당 상승으로 이어져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당히 숨 찰 정도로 주5회·하루 30분씩 실제로 겨울철 특히 1월은 심근경색과 뇌출중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말초동맥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박수가 증가한다. 여기에 운동 부족이 겹치면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겨울철 운동은 단순한 체중 관리 차원을 넘어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 건강 전략이다.

겨울철 운동의 가장 큰 적은 추위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운동 습관이다.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거나, 준비 없이 찬 공기에 노출되면 근육·관절 손상뿐 아니라 심혈관에 부담도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의 경우 계절과 관계없이 주당 150~300분의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겨울에는 땀이 많이 나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빠른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근력운동이 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빈도와 지속성이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내외의 운동만으로도 겨울철 건강 유지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겨울철 제대로된 운동방법은

제자리 걷기·스트레칭으로 몸풀고 기온 낮은 오전 10시 이전은 피해야 실내자전거·스쿼트·빠른 걷기 적절
복장은 얇게 여러겹 입는 것이 좋아

02
스트레칭·스쿼트
위주 실내운동

겨울철 신체활동
안전 수칙

자료: 보건복지부

01
운동 전에는
10분 이상 예열



로도 겨울철 건강 유지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겨울에도 햇볕을 쬐며 하는 야외 운동은 신체 건강을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비타민 D 합성과 우울감 예방에도 움이 된다. 다만,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거나 쉬워 부상 위험이 높아 운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저온 환경일수록 준비운동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갈 것을 권고한다. 운동 전 최소 10

분 이상 가벼운 제자리 걷기, 팔·다리 훈들기, 관절 가동 스트레칭을 통해 체온을 서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년층이나 평소 운동량이 적은 사람은 준비운동 없이 바로 걷기나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한다. 준비운동은 단순히 몸을 푸는 과정이 아니라, 운동 중 근육 손상과 관절

부상을 줄이고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먼저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아침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가 어느 정도 오른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또한 빙판 길이나 눈이 쌓인 길은 낙상 위험이 크므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 인근의 신체활

동이나 이어폰을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 환경 요소들을 살펴 주의해야 한다.

옷차림은 '얇게 여러 겹'이 기본이다. 운동 초반에는 다소 춥게 느껴지더라도 체온이 오르면서 금세 더워진다. 땀이 식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통기성과 보온성을 함께 고려한 복장이 필요하다. 또한 야외 운동 시 한랭질환을 주의하여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욕심부리며 운동을 지속하기보다 귀가하여 체온을 높이고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여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근력 유지와 근감소 예방에 효과적이다. 여기에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심폐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하루 10~15분의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겨울철 건강 관리의 핵심이다.

고혈압·당뇨 땐 무기운 중량 운동 금물

다만 고혈압·심장질환·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겨울철 운동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추운 환경에서는 혈압이 평소보다 상승하기 쉬우므로, 무거운 중량을 드는 근력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전력 운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동 중 가슴 통증, 어지럼증, 심한 호흡 곤란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을 때 “땀을 내면 낫는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회복 후 운동을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안전한 신체활동 실천 수칙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외과 전문의

“로봇의사가 다한다고? 수술 모르니 그런 말하는 것”

장진영 서울대병원 외과과장

“사람마다 구조 다른 체장 등 못 다뤄”

“외과 수술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 외과 술기 교육센터에서 만난 장진영(사진) 외과과장(간접췌외과)은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과 단일 진료과를

위해 조성된 이곳은 외과 교수 연구실과 전공의실 바로 앞에 자리 잡았다. 전 공의가 시간 날 때마다 들러 연습하고, 교수들이 1대1로 최신 수술 기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봇·복강경 수술 장비를 비롯해 초음파 기기, 위·대장 내시경, 인체 모형이 빼곡히 들어섰고, 과거 수술 영상을 복기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장 과장은 “의정 갈등으로 필수의료

의 취약성이 드러났지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누적돼 왔다”며 “외과의사가 줄어든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전공의를 어떻게 제대로 키울지 고민한 결과가 이 센터”라고 말했다. 그는 “줄어든 수련 시간을 밀도 높은 교육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미래의 외과의사를 길러낼 수 없다”고 했다. 술기 교육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복 수술이 줄고 복강경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전공의가 ‘어깨너머로’ 배우던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과거 6~7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센터 구축에는 약 10억원이 투입됐다. 기부금과 교수들의 자발적인 분담으로 마련됐다. 장 과장은 “과거처럼 ‘알아서 보고 배워라’는 방식이 아니라, 교수들이 직접 개입해 ‘닝 커브’(숙련에 필요한 시간·노력)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도 반기고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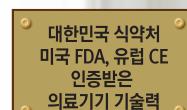
기반 로봇이 인간 의사를 앞지를 것”이라며 “의대에 갈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장 과장은 “수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선 그었다. “백내장처럼 구조가 같고 표준화된 수술은 로봇이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췌장·담도암처럼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와 염증 상태, 암의 진행 양상이 다른 수술은 자동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나이, 삶의 목표, 치료에 대한 의지에 따라 수술 범위와 시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스더 기자

세라젬

2026 설 명절, 세라젬이 준비한 특별 혜택을 만나보세요! CERAGEM

목부터 어깨, 허리, 골반까지 몸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누워보세요. 이유를 압니다. 지금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복부 온열 도자 (V5, V6, V7, V9), 에어셀 다리 마사지 (V6, V7, V9)-혈액 순환 개선
- 목, 어깨, 등, 허리, 골반에 집중 온열 (최고 149°F) 마사지를 제공하여 척추 통증과 근육통 완화
- 마스터 V9 시그니처 - 이지 리클라이닝, 5세대 세라코어 엔진, 베드 모드 & 체어 모드



우아함을 위한 디자인, 섬세하고 정교한 휴식 기술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랙스 온열 케어로 따뜻하고 편안한 휴식
- 복부 온열 진동 도자 (모델 M4, M6), 에어셀 다리 마사지 (M6)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으로 다채로운 마사지 모드 선택
- 전신을 빈틈없이 풀어주는 5단계 전신 에어 포켓 마사지 (M10 모델)
- 직각 온열 마사지 볼 (최고 149°F)로 효과 극대화 (특허 M6, M10 모델)
- 척추 라인 스캔으로 척추 길이와 굴곡도 측정하여 체형에 맞춘 최적의 마사지 (M6, M10)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MERCY
CHIROPRACTIC

26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온·오프라인 2층)

센터빌

703.830.0993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코티시티

410.465.3221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소셜연금 수급자 해외 여행 들여다본다

사회보장국, 국토안보부 데이터 활용 가능
“부적절한 지급 줄이는 준법 강화 조치”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규정을 바꿔 소셜연금과 보조금 수급자의 해외 여행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초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해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수집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생활보조금(SSI) 수혜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 급여 수급자가 약 1100만 명, SSI만 받는 수급자는 약 500만 명이다.

기준 규정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SSI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해야 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SSI는 미국과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국은 수급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과 여행 데

이터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소득이나 고용, 건강 상태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장국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 시스템은 편의성이 높지만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문제를 발견해 바로잡는 것이 급여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변화는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행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저장, 공유되는지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규정 개정과 데이터 공유 확대가 자격 관리와 개인 정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여행 데이터 활용 확대는 이민 단속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와 데이터 활용



사회보장국이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소셜연금 수급자의 해외 여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보장국의 민감한 데이터가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 오용되거나 부적절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최근 ‘폴리티코’는 법무부 관련 법원 문서를 바탕으로 정부효율부 팀원 2명이 지난해 초 사회보장국 내부에서 근무했고 사회보장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특정 주의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와이어드’도 사회보장국과 다른 연방 기관들이 몇 달 동안 국토안보부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데이터가 비자 단속이나 추방 대상자 선별에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최근 공지 절차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 공유를 공식화했다.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사회보장 데이터가 이민 단

속과 연계될 경우, 소셜번호를 신청한 적이 있는 5억 명 이상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접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데이터 가운데 일부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권자가 부당하게 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유희 객원기자

소셜연금 평균 월 수급액 2000불 돌파

소셜연금 평균 수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 2000달러를 넘어서졌다.

여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률이 비교적 높았고 임금 상승으로 신규 은퇴자의 평균 수급액이 상승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평균 수급액이 월 2000달러로 커지면서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연방 세금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은퇴자도 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개인 신고 기

준 합산 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인 경우와 부부 공동 신고 기준 합산 소득이 3만2000~4만4000달러인 경우 연금의 최대 50%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합산 소득이 더 많으면 과세 비율은 최대 85%까지 올라간다. 개인 신고 기준으로는 3만4000달러를 초과할 때, 부부 공동 신고 기준으로는 4만4000달러를 초과할 때 이에 해당한다.

올해 평균 월 2000달러, 연간 2만

4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추가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과세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이때문에 수백만 중산층이 소셜연금 인상분을 다시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균 수급액 2000달러 시대는 상징적인 이정표다.

하지만 의료비와 주거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변하지 않은 과세 기준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급액이 커졌다 고 해서 은퇴자의 실질 구매력이 과거 보다 크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자비적이다.

5124억 ‘사랑의 열매’ 가장 많이 모았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5124억원을 모금했다고 2일 밝혔다. 역대 희망나눔 캠페인 중 최대 모금액이다.

사랑의 열매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폐막식을 열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62일간 진행된 캠페인을 마무리 했다. 나눔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13.9도를 기록했다. 모금액 중 법인 기부금

(3920억원)은 전년 대비 6.9% 늘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총 800억원을 기부했다. SK그룹은 8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개인 기부금(1204억원)은 전년 대비 3.5% 줄었다.

디지털, 참여형 기부도 확대됐다. 두 나무는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했고, 카카오와 함께한 ‘파뜻한 연말, 트리를 부탁해’에는 41만 명이 참여했다. QR코드 기반 간편 결제를 통한 참여도 잇따랐다.

채혜선 기자

서 지급 일정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번 일정 조정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올해 기준 SSI 최대 월 수급액은 단독 수급자가 994달러, 자격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491달러다.

① 중앙일보



대표전화: 703-281-9600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 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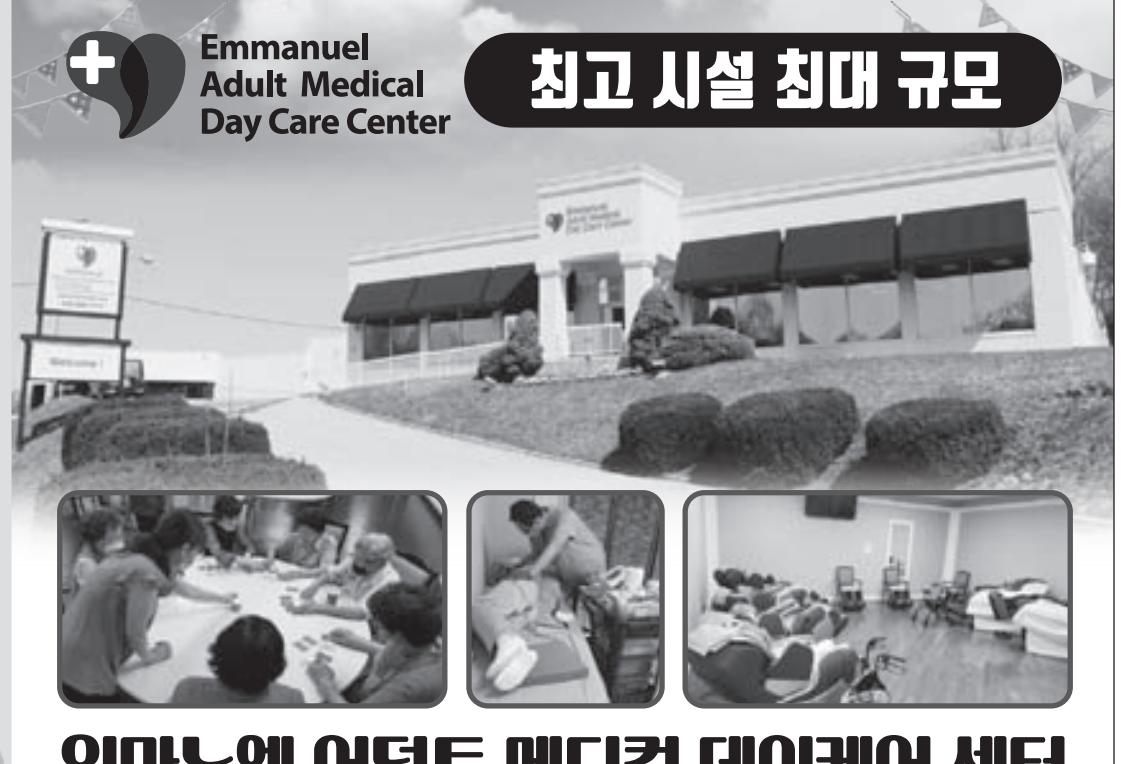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그래미 벽도 넘었다… ‘골든’ K팝 새 역사

케데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상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힌)의 주제곡 ‘골든(Golden)’이 K팝 최초로 그래미상을 받았다.

1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에서 ‘골든’은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상을 받았다. 시각 매체용 노래에 수여하는 상으로, ‘골든’을 작사·작곡한 한국계 미국 작곡가 겸 가수 이재와 작곡에 참여한 테디, 이도(IDO, 이유한·곽중규·남희동), 투웬티포(24) 등이 수상자였다. 투웬티포는 수상 소감에서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K팝의 개척자’ 테디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고 말했다.

K팝 아티스트들의 그래미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성악가 조수미(1993년), 엔지니어 황병준(2012·2016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2021년) 등 클래식 분야에선 수상자가 나왔다.

영국 BBC는 “‘골든’의 그래미상 수상은 K팝 음악의 문화적·상업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케데힌은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문화 콘텐트 중 하나이자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였다. 그리고 이제는 K팝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신의



1 [로제(왼쪽)와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로 그래미 오프닝을 장식했다.] 2 [넷플릭스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의 작사·작곡가들. 왼쪽부터 투웬티포(24), 마크 소네블리, 이재, 이도(IDO, 이유한·곽중규·남희동), 테디 프로듀서는 시상식에 불참했다.]

먼스를 선보였다.

‘골든’ 외 다른 K팝들은 모두 수상이 불발됐다. 로제의 ‘아파트’는 그래미 어워즈 본상인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와 장르상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신인상’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캠트아이, ‘베스트 뮤지컬시어터 앨범’ 부문 후보였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도 수상이 불발됐다. ‘골든’도 ‘올해의 노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이외의 부문에선 이름이 불리지 못했다.

그래미 어워즈 가장 큰 상인 ‘올해의 앨범’의 영광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배드 베니에게 돌아갔다. 그래미 어워즈에서 스페인어로 된 앨범이 ‘올해의 앨범’ 상을 탄 건 최초다. 또 다른 본상인 ‘올해의 노래’는 빌리 아일리시, ‘올해의 레코드’는 켄드릭 라마가 받았다. 이날 배드 베니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전에, ICE(미국 이민 세관집행국)는 사라지라고 말하고 싶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해 박수를 받았다.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은 빌리 아일리시도 가슴에 ‘ICE 아웃’(ICE Out) 배지를 달고 시상대에 올랐다.

최민자·정은혜·최혜리 기자

‘베스트 송 리튼 포…’ 부문 수상 한국계 이재·테디·이도·24 등 영예 외신 “K팝, 문화·상업적 위상 높아져”

축하 무대로도 이목을 끌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브루노 마스는 록 버전으로 편곡된 ‘아파트’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테일러 스위프트 등 팝 가수

들도 관객석에서 후렴구 “아파트”를 외치며 호응했다. 한국의 하이브, 미국의 게펜 레코드가 만든 K팝 그룹 캠트아이는 이날 자신들의 곡 ‘날리’의 퍼포

로제 ‘아파트’가 오프닝 무대 장식 3개 부문 후보됐지만 수상은 불발 수상자 “ICE 아웃” 이민정책 비판도

엑스(옛 트위터)에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다”며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K팝 아티스트들은



2

6월 BTS 공연… 부산 바가지 골머리 1박에 70만원, 요금 9배 뛰기도 업계선 “공연 팬 원래 요금 올라” 부산시, 대학 기숙사 개방 등 논의 대통령 “악질적 횡포 뿌리 뽑아야”

“설레고 즐거워야 할 때 숙박비 문제로 너무 신경 쓰니 머리가 아프다.” 대구에 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30대 팬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과 함께 숙박업소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올렸다.

오는 6월 12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BTS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에 서둘러 방을 잡았는데, 이후 숙박업소 측으로부터 “착오가 있었다. 객실 예약을 취

는 신고가 주를 이룬다. 부산시 관계자

팬들 가슴보다… 숙박비가 더 뛴다



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숙박업소 측에선 시스템 오류나 직원 실수로 잘못된 예약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지역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BTS 월드투

어 일정과 함께 공연 예정 지역이 발표되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실제 숙박업소 플랫폼에서 공연 기간(6월 12, 13일) 부산 객실을 검색했다니 1박 요금으로 60만~70만원을 내건 업소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1박 요금으로 60만원을 책정한 업소의 경우 평시인 2월 주말 같은 객실 1박 요금은 7만원으로, 9배 가까이 올랐다.

3월 BTS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이 기간 주요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의 객실이 거의 모두 찼고, 인근 명동과 을지로 업소에도 숙박문의 가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경기 고양시

(4월 공연) 또한 공연 기간 고양시 종합 운동장 인근 숙박업소 객실 1200여개 예약이 마감됐다. 숙박업소 플랫폼에선 이들 객실 1박 요금이 60만~70만원 대로 안내됐다.

논란이 일자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찾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3일 숙박업소가 많은 해운대·수영·부산진구 등 자치구 7곳을 포함해 숙박·외식·소비자단체와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SNS에서 부산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를 짚으며 “시장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앙부처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주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구인 리셉션리스트/데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Orthodontics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Invisalign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맥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아름답지 않은가… 시도, 피겨도



2026 동계올림픽

시쓰는 피겨선수 김현겸

3년간 쓴 시 엮어 지난해 시집 발간
발복 부상 딛고 올림픽 출전권 따내
“밀라노서 느낀 감정 녹여 2집 낼 것”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는 김현겸(20·고려대)은 빙판 위를 지치며 시를 쓰는 은반 위의 시인이다. 3년 동안 틈틈이 써 내려간 시들을 엮어 시집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면』을 지난해 세상에 내놨다.

그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시보다는 그날그날의 감정과 생각, 불현듯 떠오른 발상을 기록한 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을 낸 이유는 ‘피겨 선수’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인간 ‘김현겸’의 모습을 한 께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를 실어 날것의 느낌이 강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첫 도전이었기에 미숙한 부분까지 가감 없이 드러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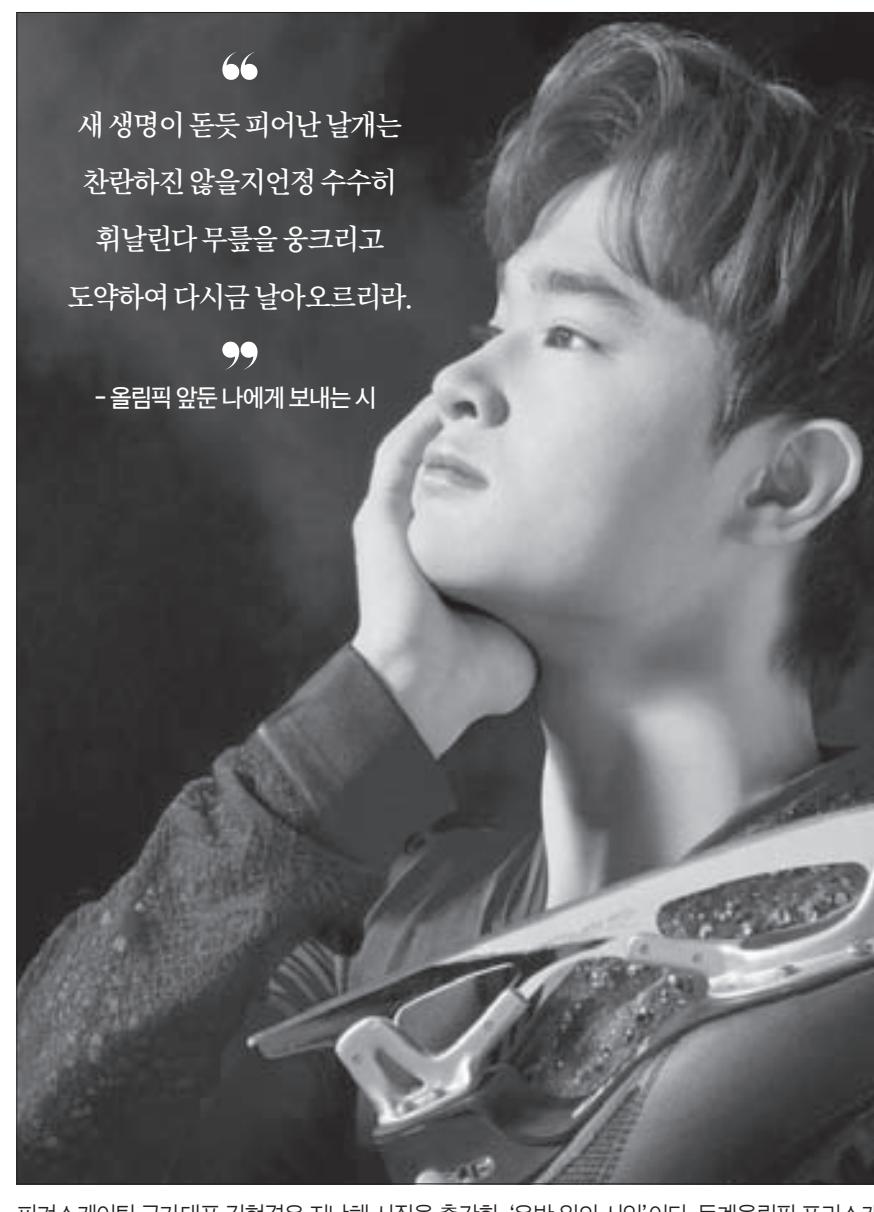
글과 책, 국어 과목을 유난히 좋아했던 소년 김현겸은 축구를 하러 나섰다가 우연히 들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취미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것이

선수의 길로 이어졌다. 열일곱 살이던 2023년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듬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는 남자 싱글과 단체전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한국 피겨의 미래로 우뚝 섰다.

시련도 있었다. 지난해 하얼빈 아시안게임 쇼트프로그램 도중 발복 부상을 입은 데다 장염까지 겹치면서 프리스케이팅을 기권해야 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올림픽 추가 출전권을 따냈고, 지난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차준환과 함께 밀라노행 티켓을 땄다.

지난달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17위에 머물렀던 경험은 그에게 빼아픈 교훈이자 자양분이 됐다. 이번 올림픽에서 그는 자유로운 감성을 극대화한 콜드플레이의 ‘Paradise’를 쇼트프로그램 음악으로 택했다.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OST에 맞춰 이국적인 아랍풍의 선율 위에서 예술성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올림픽이 끝난 뒤 밀라노에서 보고 느낀 감각들을 녹여낸 두 번째 시집을 낼 계획이다. 김현겸은 “집이 내면의 감정과 개인적인 상황에 집중했다면, 2집은 세계와 현상, 나라는 존재를 최대한 배제한 채 사회와 군집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금까지 써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현겸은 지난해 시집을 출간한 ‘은반 위의 시인’이다. 동계올림픽 프리스케이팅에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OST에 맞춰 감미로운 연기를 펼친다.

[사진 대한체육회]

내려간 내용들이 꽤 만족스러워 벌써부터 설렌다”고 전했다.

그가 가장 경외하는 문장가는 시인 이자 소설가, 건축가였던 ‘이상’이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오감도』와 소설 『날개』의 문장들이 문득 문득 떠오르곤 한다”고 말했다. 피겨와 시의 공통점을 묻는 질문에는 “아름다움, 또 아름다움, 또한 아름다움”이라는 짧고도 강렬한 대답을 내놓았다.

‘어질게 겸하라’는 뜻의 이름 현겸은 겸도인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그에게 올림픽 메달은 소중한 목표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는 “태극 마크의 무게는 언제나 남다르지만 올림픽은 확실히 더 벽찬 구석이 있다”면서도 “세상에 나를 알리는 일도 뜻깊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평소의 행실과 선행이 올림픽의 영광 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성숙한 가치관을 드러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앞둔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시 한 구절’을 부탁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답했다.

“새 생명이 돋듯 피어난 날개는 찬란하진 않을지언정 수수히 휘날린다 무릎을 웅크리고 도약하여 다시금 날아오르리라.”

박린 기자

‘스켈레톤 최강’ 독일 막아선 미 대표는 한국계

미 스켈레톤 대표 미스티크로

육상서 교체 후 8년만에 세계정상
흑인여성 스포츠스타 보며 꿈 키워

는 펭귄처럼, 스켈레톤 선수 또한 썰매에 배를 깔고 누워 정면을 응시하며 시속 120~130km로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한다.

그는 스켈레톤 입문 8년 만인 지난해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섰다. 세계 선수권 훈성 계주와 여자 1인승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멀리뛰기, 투척, 허들, 계주, 단거리 달리기, 7종 경기 등 육상 훈련으로 완성한 빠른 스타트가 장점이다. 올림픽 닉네임과의 인터뷰에서 로는 “육상 선수로 10년

간 같고 닦은 기술이 스켈레톤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두 종목의 리듬은 서로 다르지만, 트랙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허리를 숙인 채 질주하는 어색한 자세 등이 닮았다”고 말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로는 한국계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현겸은 지난해 시집을 출간한 ‘은반 위의 시인’이다. 동계올림픽 프리스케이팅에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OST에 맞춰 감미로운 연기를 펼친다.

[사진 대한체육회]

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성을 자신의 장점이자 경쟁력으로 여기게 됐다. 흑인 여성 스포츠 스타 카멜리타 지터(육상), 세리나 윌리엄스(테니스) 등을 보며 꿈을 키웠다. 로는 “지터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때 그의 탄탄한 허벅지와 종아리를, 윌리엄스가 강력한 리턴 샷을 날릴 때 그의 팔 근육을 유심히 봤다”면서 “지터와 윌리엄스도 내가 놀랄 받는 특징들(검은 피부와 근육질 몸매)을 가졌지만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로가 나설 스켈레톤 훈성 계주는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이는 종목이다. 남녀 선수가 각각 레이스한 뒤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매긴다.

김영주 기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서+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 Ace Acupuncture
571-438-4644
-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별로우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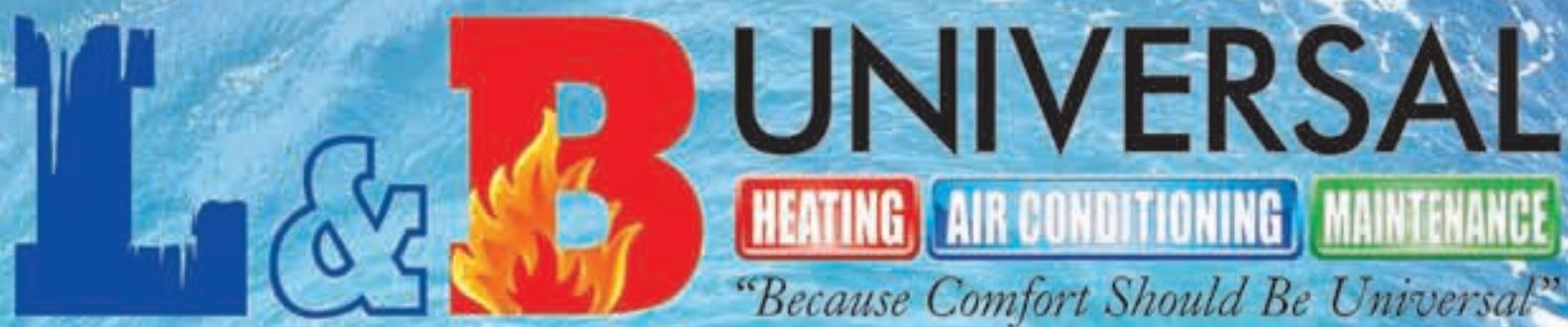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오래되고 잣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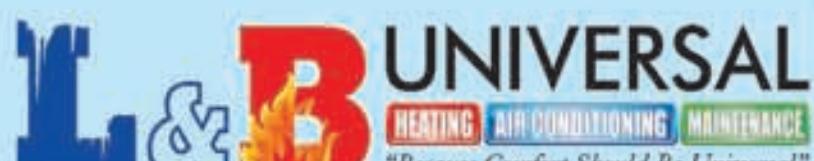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CMM 회원 혜택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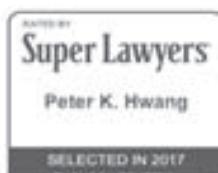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SHK|FIRM
ATTORNEYS-AT-LAW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2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지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렬리

-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전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2월 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학벌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담당자 모집합니다.
영주권 스펠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튜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스 몰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클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업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매개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훌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 한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홀.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포토맥 싱글홈 렌트 \$4,000
방3, 화2
▶301-399-0140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트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경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 애란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피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 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피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콩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레일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파티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티임, 판매 경력자 유대
문의 :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 담당자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 흄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 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함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티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센터빌, 챈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 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 담당자
월/화/목/금, 영어 가능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티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 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t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 담당자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RT-1 관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
703-712-7417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http://no1golflounge.com)

브래드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리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료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 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 담당자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b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중앙일보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6am-2pm) \$18/hr+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콘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평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행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타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비구함. 일주일에 3,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플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유 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InCourage Martial Arts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설빌
Tony@e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맥글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 703-505-576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데크, 카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카친, 234/66/GMU근처, 이노베이션 평소 쇼핑몰 인근, 교통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카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일 카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e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1. 게이더스버그 타운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컷시티 타운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 \$2,600
방3, 화장실 2/2

5. 콜롬비아 싱글홈(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페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카고 2, 앤드 유니언
▶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리모델링, 개 고양이 가능,
단기 렌트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2, Top Floor, 밝고 환한 콘도, 업데이트한 부엌(Granite Counter Tops, 고급 캐비넷, 고급 SS 주방용구들)

넓은 리빙룸, 넓은 발코니, 마트 근처, 집 전체 잘 관리된 예쁜 콘도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카고 1, 수영장, 휴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 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카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 571-239-6054

방 렌트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 아웃 전체
방 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옥실 달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앞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 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실/주무실 분
703-732-1246

천들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어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렌트 워크 아웃, 간단한 취사 가능, 교통편리, 주차 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 요망)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트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 환영
고양이 향상으로 인해 바람입니다.
571-345-8879 (문자 요망)

애난데일에서 5분 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 3, 풀화장실, 리빙룸, 큰 데크, 큰 창고, 카고 2개, 넓은 뒷마당, 395/495/953번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기/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 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Den, 끄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 703-919-04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카고 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3. 천들리 타운홈 \$700,000
방3, 화2.5, 카고 2, 3레벨 모두 범퍼 아웃되 어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타운홈

4. 센터빌 타운홈 \$700,000

방3, 화2.5, 카고 2

▶ 703-231-55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3.5, 카고 2, 앤드 유니언,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2. 페어팩스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2월 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메릴랜드 랭햄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카고2, 지하율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카고2, 교통 편리
▶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full bath, 워크
아웃, 브래드/28,66,29 교통요지, 2017 리
모델링
▶ 517-239-6054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카고1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카고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알디싱글 하우스 \$869,000
방4, 화2.5, 카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17-239-6054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카고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카고2, 아주 넓고 이쁜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카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카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덤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elleria 옆
▶ 517-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카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 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시스템, 야외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17-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옆 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펍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워라이센스/퓨전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렌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렌차이즈 3곳, VA & MD
11. 쿵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 DJ Lee 703-303-8003

베더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밤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트림(덴뿌라) 기계 300불
4. 스몰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렌스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랙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애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니얼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자봉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굴룸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d,Out), 덱, 메인더너스와 클리
닝, 샌드,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
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온미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 703-244-3453

マイ클 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프리저 수리 전

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덱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프리저, Carrier, Trane 딜러,

데크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프리저/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온장비, Ice Maker, 냉동, 냉장, 워킹프리저,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프리저, 워터 히터

▶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프리저, 아이스머신, 덱트설치&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밸러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히팅 ·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비

AWARDED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태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화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9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 톡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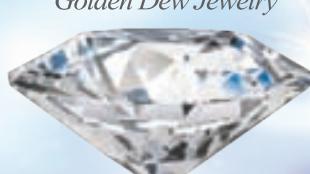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세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정가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엘리코시티 롯데플라자 내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둘째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팎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제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 / 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기친후드, 닥트)
- 보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Ivan: They're organizing a basketball team at work.
I'm thinking about playing.

아이븐: 회사에서 농구팀을 만든다. 나도 농구를 할까 생각 중이야.

Liz: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리즈: 그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데.

Ivan: Give me a break. I was a good high school player.

아이븐: 한 번 봐주라. 나도 고등학교 때 괜찮은

농구선수였어.

Liz: That was twenty years ago. I don't want you to have a heart attack running up and down the court.

리즈: 그건 20년 전 이야기지. 코트 양쪽을 뛰어 다니다 심장마비 일으키면 어떡해.

Ivan: Do you want me to give up basketball?

아이븐: 농구하는 거 포기하라는 거야?

Liz: Well you should at least get a physical.

리즈: 그게 최소한 건강 검진은 받아야지.

Ivan: Okay I can do that.

아이븐: 알았어. 그건 받지.

Liz: And you need to cut back on fatty foods so you can lose some weight.

리즈: 그리고 기름진 음식 덜 먹어서 몸무게를 좀 줄이고.

Ivan: That's a good idea.

아이븐: 그거 좋은 생각이야.

Liz: But I'm still worried about you having a heart

attack.

리즈: 그래도 심장 마비 일으킬까 걱정돼.

기억할만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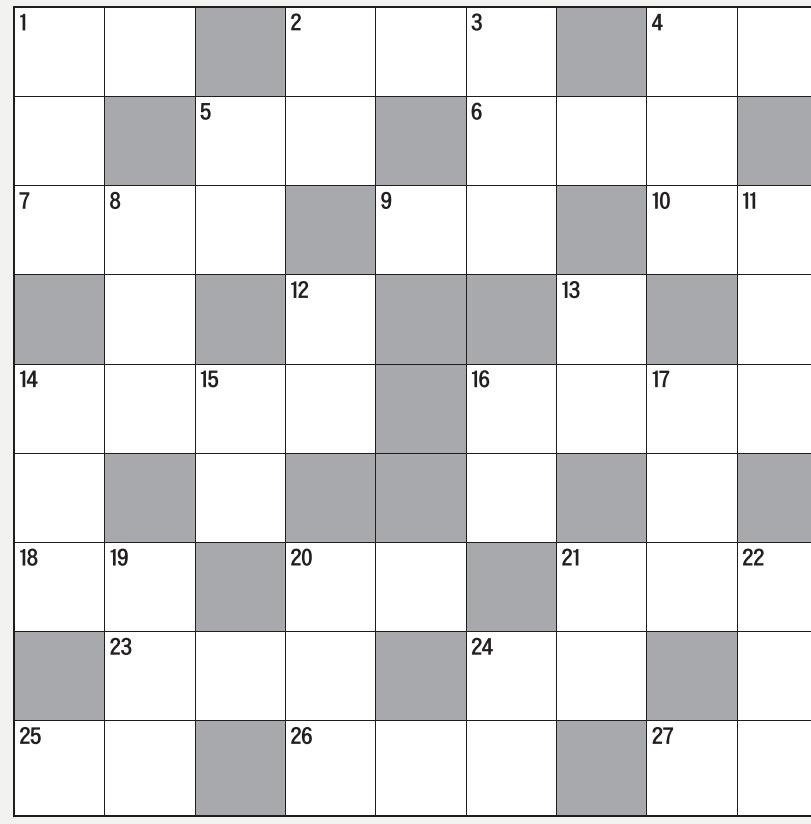
▶ running up and down the court: (농구 등의) 코트 양쪽 끝을 계속 뛰어다니다.

"He runs up and down the court faster than anyone."

"(그는 누구보다 빨리 코트 양쪽을 뛰어다녀.)"

▶ at least: 적어도.

날마다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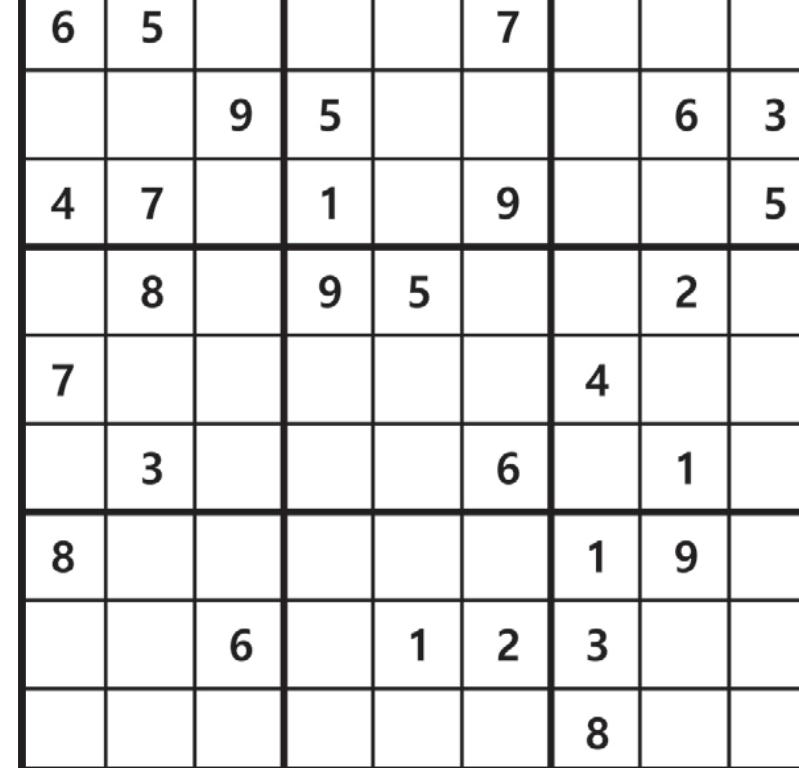
가로열쇠

(1) 마소를 먹이기 위하여 밀려서 썬 짚이나 마른 풀 (2)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4) 내 얼굴을 볼 수 있죠. ~속의 나는 원손잡이이지요 (5)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 따위의 재료 (6) 여러 사람이 두루 견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 무슨 일만 생기면 나보고 책임이 있다 하니 내가 무슨 ~인가 (7) 미꾸라지를 재료로 하여 끓인 국 (9) 산에 오름 (10) 예전에,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 (14)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남.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함 (16) 쇠고기나 돼지고기, 오징어, 조개 등과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국물이 조금 있는 상태로 볶듯이 만든 음식 (18) 날마다 아침에 발행하는 신문 (20) 이것 가운데 실 가고, 이것 도둑이 소도둑 된다 (21) 겉보기에 좋고 질적으로 실속이 있는 물건 (23) 열기나 증기로 땀을 내고 목욕을 하는 일 (24) 속으로 깊이 든 병. 심한 타격을 받아서 입은 손해 (25) 팔의 남편 (26) 서로 교차하는 도로들을 입체적으로 만든 시설 (27) 장군 명군, 서로 공격과 수비를 하여 승부를 가리죠

세로열쇠

(1) 짧은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짐을 이르는 말. 일각이 ~라 (2) 개울 상류의 둘 밑에 사는 갑각류 (3)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4)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무찌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 (5) 한꺼번에 되게 당하는 손해나 곤란 (8) 생선, 김, 미역 따위를 파는 가게 (11) 평화를 상징하는 새 (12) 아니 펜 굴뚝에서는 나오지 않죠 (13) 땀을 씌는 데 쓰는 질그릇 (14) 꼬리가 부채 모양으로 퍼져 있으며 머리와 목에는 털이 없고 살이 늘어졌는데, 그 빛이 여러 가지로 변하므로 이 이름이 붙었다 (15) 둘 따위를 팔을 힘껏 흔들어서 멀리 내던짐 (16)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끓인 다음 간수를 넣어 영기개 하여 만든다 (17) 날치기, 들치기, 소매치기 등의 날쌘 좀도둑의 패거리 (19) 꼼꼼하고 융통성 있는 수단. 그는 ~가 좋아서 무슨 일을 하든 손해 보는 일이 없다 (20) 초승달 모양의 노란 과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작물의 하나이죠. ~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과 피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21) 일본 병정 (22) 우는 소리가 처량한 겨울 철새 (24) 동네 안의 좁은 길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www.92chickenusa.com

창업주 모집!!!

대한민국 치킨은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입니다!!!
가맹비 없음!!!!!! 로열티 3년 없음!!!!!!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문의 : 770-769-7575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모풀!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92Chicken
KOREAN STYLE CHICKEN

92K-corn dog

기타 지역

구인

스시맨 & 주방급구

알리스카, 숙식제공
성실하신분
(408)497-1540
메세지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식쉐프 & 스시맨

알리스카, 취업결정시유없는분
숙식제공(858)337-0982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문의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매월 2주마다 신액
9월
햇산삼
세일

친중서상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출출
작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순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간편합니다.

동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를 터치 (213)675-6877

20년된 한식점 일식당금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운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헬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 TEL: 213-272-6031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불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an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